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피해 지역 한인들 보상 말고 대금결제 눈앞

전기 단전으로 인한 식재료들 모두 폐기 처분. 콜롬비아가스, 음식 폐기, 매출액, 종업권 주급 등 보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가스 누출 폭발화재로 지난 주말 출입이 통제됐던 로렌스 지역 한인 업소들이 하나 둘씩 그동안 닫았던 문을 열고 정상영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소는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피해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 업체는 로렌스 소재 신신식품, 이가그릴 그리고 가든하우스 등과 앤도버 소재 세탁소 등 상당수다. 특히 이가그릴과 신신식품이 소재한 사우스브로드웨이는 17일 오후 4시께 가스 사용이 가능해졌지만 이외 지역은 아직 가스 복원이 요원하다.

사우스유니언 스트리트에 위치한 신신식품은 19일 주 인스펙터의 빌딩 및 식품 인스펙션을 마치고 2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갔다. 신신식품 안혜영 사장은 19일 전화 통화에서 “피해 후 주 인스펙터가 나와 생선과 육류 및 냉장 식품을 모두 버리라고 해서 2일에 거쳐 상당수를 버리고 19 일에는 마무리 하고 있는 상태” 라고 전했다. “폐기처분한 식품들이 너무 많아 커다란 쓰레기 덩어리 2대 분량을 버려야 했을 정도” 라고 밝혔다.



로렌스 소재 한인 업소중 유일하게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가든하우스. 가스가 공급되기 위해선 아직도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피해 보상과 관련 안혜영 사장은 “보험에서 매출 정도만 보상해 줄 뿐” 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미 전역에 알려진 대형 사고인 관계로 콜롬비아가스(Columbia Gas)에서는 폐기처분한 식료품에 대한 보상을 한다고 해 다행” 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물품공급처에 대한 대금지급이다. 매주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공급처에서는 화재 상황을 고려해 대금 납부를 미뤄주는 반면 일부에서는 정상적인 지급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우스 유니언 스트리트 소재 이가그릴은 19일부터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7면으로 계속



백두산에서 함께 손을 맞잡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

文 "백두산 관광 시대 올 것" 金 "남측 동포도 봐야죠"

히늘도 도운 백두산 날씨, 더없이 쾌청
리설주, 백두에서 해맞이 한라에서 통일

(백두산·서울=뉴스1) 평양공동취재단, 나혜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일 백두산에 올라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동포들이 (모두) 와서 백두산을 봐야죠"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오전 9시33분쯤 백두산 최고 봉인 장군봉에 도착해 "분단 이후에는 남쪽에 서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리움의 산이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1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인천행항공권 \$990 부터

최저가

미서부 편주 7박8일

1인 \$750~

IACE TRAVEL 617.424.8956

항공권·호텔·여행 12:00PM - 9:00PM EST | Tel: Free 866-619-4223 | info@iace-korea.com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콘도·비즈니스·빌딩·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21 CENTURY 21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CENTURY 21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김용현 총영사가 지난 6월 바이오컨벤션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보스톤코리아 자료사진)

평통, 김용현 총영사 초청 특별 강연

필하모니아 보스톤 콘서트 직전 강연
텡스대 그라노프홀 오후 5시 30분부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보스톤협의회는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를 초청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9월 29일 토요일 개최한다.

추석 축제 코리아워크의 대미를 장식하는 필하모니아보스톤의 콘서트 직전 같은 장소인 텡스대학 그라노프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개최된다. 콘서트는 7시 30분 시작한다.

김용현 총영사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부단장과 평화외교기획 단장을 역임한 북한외교 전문가다. 김총영사는

지난해 연말 보스톤 도착, 하루 후 평통 강연을 가진바 있어 평통과 인연이 각별하다.

평통은 당초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을 초청해 강연할 예정이었으나 미국방문의 여의치 않아 김용현 총영사 강연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김총영사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오기로 한 전문가 방미가 어렵게 되는 바람에 코리아워크 행사 등으로 좀 경황이 없는 가운데 갑자기 맡게 되기는 하였으나, 마침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를 맞는 시점이기도 하여 흔쾌히 하겠다고 하였다" 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워크 행사 마지막을 장식하는 필하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9월 29일 개최된다

코리아워크 피날레 오케스트라 연주회

〈평화로의 여정〉 9월 29일 토요일 텡스대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추석맞이 가을축제 코리아워크 행사 마지막을 장식하는 필하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음악감독: 박진욱)의 'Journey to Peace' (평화로의 여정) 연주회가 9월 29일 토요일에 텡스(Tufts)대학에서 열린다.

보스톤 총영사관의 주관으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워크는 한식세프초청행사, 영화우리들 상영, 하버드강연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

주로 막을 내린다.

이번 연주회는 코리아워크를 위한 특별행사로 기획되어, 시간의 흐름과 역사 속에서 쌓여진 민족 고유의 정서가 드러난 곡들로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학생들이 특별출연하여 오케스트라와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는 순서도 있다. 티켓 가격은 일반 \$20, 시니어 \$10 그리고 학생들은 무료다. 행사 당일 현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장수인단장은 "각 민족의 고유멜

로디, 아리랑 등의 한국 곡들을 감상할 수 있는 코리아워크 음악회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지역 한인사회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978-821-9434, harmonia-boston@gmail.com

일시: 9월 29일(토) 7시 30분

장소: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덴고, 연방 하원 0.16%차 아쉬운 패배

덴고, 복잡한 소송 대신 깨끗한 승복 선택 "이번 패배 수용은 시작에 불과" 정계진출 의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니얼 고(33, 이하 덴고) 전 보스톤시 장 비서실장이 연방하원 민주당 경선에 서 아쉬운 패배를 안았다. 덴고 후보는 패배를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단지 시 작일 뿐” 이라고 밝혀 앞으로 계속 선 출직에 도전할 여지를 남겼다.

덴고 후보는 재개표가 완료된 17일 오후 4시 이메일을 통해 “89000표중 우리 는 약 0.1%의 표가 모자란 것으로 보인 다” 며 “우리가 이 근소한 격차를 뒤집 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여유가 없다. 이 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도록 로 리 트래헨을 위해 힘을 집결해야 할 때 ” 라고 밝혔다.

고 선거본부측은 로웰지역 선거 결과 신뢰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향 후 법적인 소송절차를 선택하기 보다는 민주당 예비선거(경선)란 점에서 패배 를 수용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 3지역구의 최대 표밭이었던 로웰지역 수개표 결과 로리 트래헨 후보 는 당초 3906표보다 72표 더 많은 3,978표 로 집계됐으며 덴고 후보는 1002표보다

27표 많아진 1,029표에 그쳤다.

덴고 후보는 고향인 앤도버와 로렌스 등 동북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으 나 로웰 지역의 표심을 잡지 못해 아까 운 석패를 기록했다. 로웰 지역은 로리 트래헨 후보의 거주지역이다.

윌리엄 갠빈 주무장관실은 재개표 결 과 총 88,230표 중 로리 트래헨 후보가 18580표를 획득해 덴고 후보를 145표 차 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126 표차이보다 재개표 결과 더 많은 표차다

16일 일요일 로웰하이스쿨에서 진행 된 재개표에는 150여명의 덴고 자원봉 사자들이 모여 참관인 활동을 벌였다. 덴고 후보의 아버지 하워드고(고경주) 씨와 어머니, 덴고의 부인 에이미 소넷, 동생 스티브 고, 여동생까지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지난 선거 축하파티와 마찬가지로 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덴고 선거본부 저스틴은 한인들의 참 여에 대해 “두차례의 기금모금 만찬을 통해 덴고를 격려하고 또 자원봉사자로 도운 것에 대해 충분히 감사한다” 며 선 거 재개표 자원봉사 신청에 대해서는 구



16일 일요일 로웰에서 진행된 재개표 현장, 한명은 이름을 부르고 한명은 표기를 하며 양측 참관인 2명 씩 재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개표 현장에는 덴고의 아버지 하워드 고, 엄마, 동생 스티브 고, 아 내 등 전 가족 총 출동해 참관인으로 재개표 과정을 지켜봤다



투표지에 문제가 있자 손을 들어 변호사를 부르고 있는 스티브 고

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덴고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감사 편지에서 “우리는 더 많은 해야 할 일 들이 남아 있다. 우리가 믿는 미국을 만

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 말하고 “지켜봐 달라. 이번 도전은 단 지 시작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정동희 Donghee Jan

김하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 Plus Fall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September 8, 2018

Class	Time	
PSAT/SAT Prep	9:00 AM – 11:00 AM	11th Grade
SAT Prep	11:30 AM – 1:00 PM	10th Grade
SAT I Prep	1:30 PM – 3:00 PM	9th Grade
SAT I Prep	4:00 PM – 6:00 PM	12th Grade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가을밤 가야금과 동서양 혼성트리오 사위 연주회

보스톤한인교회 오아시스 뮤직카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악과 서양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을밤 이색 연주회가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 오아시스 카페뮤직시리즈(Oasis Cafe Music Series)의 무대에 오른다.

보스톤한인교회 ECC에서 보스톤지역 주민들을 위해 음악을 선사하고 있는 오아시스카페뮤직시리즈 9월 30일 (일요일) 5시 공연에는 가야금, 탈춤 퍼포먼스, 퍼커션과 바이올린 연주가 어우러지는 트리오 사위 (SAAWEE)와 김도연의 연주가 펼쳐진다.

연주회 제목은 <The Same River Twice>이다. 런던, 뉴욕, 보스톤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온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같은 국악의 품에서 태어나 창의적인 변모를 모색하는 21세기 음악인들이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연주로 답한다.

김도연은 우특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동아국악콩쿠르 등의 수많은 대회에서 금상 및 최우수상 입상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국악과를 수석 졸업 후 2014년부터 NEC에서 수학하며 한인사회와 보스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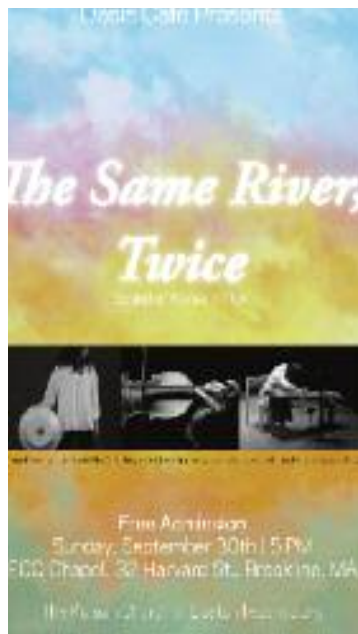
의 음악계에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하버드/NEC 피아니스트 체이스 모린과 함께 내놓은 음반 GaPi 가 지난해 한국의 그래미상이라 할 수 있는 Korean Music Awards의 최종후보로 오른바 있고 2018년 St. Botolph Club Foundation의 Emerging Artist Award를 수상했다.

트리오 "사위"의 멤버들도 다채롭고 특별한 경력을 자랑한다. 바이올린 연주자 Sita Chay는 국악은 물론 인도의 라가, 불가리아 댄스뮤직, 플라멩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2017년 Best Mariach Music으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Latin Grammy Award를 수상했다.

타악 연주자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지혜는 2012년 앙상블 시나위의 일원으로 KBS 국악경연대회에서 그랑프리 수상했으며 영국 런던에 베이스를 두고 Urban Sound의 멤버로 유럽에서 음악, 댄스, Visual Arts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인수는 고려대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전통 탈춤과 타악기를 두루 섭렵했다. 김덕수의 사물놀이패와 탈춤 협



연을 했으며 탈춤창작그룹 도담도담을 설립 운영하였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아끼며 그 미래의 모습을 응원하는 많은 교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다과와 함께 연주자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곁들여진다.

일시: 2018년 9월 30일(일) 오후 5시
장소: Education & Community Center, 보스톤 한인교회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www.ecckcb.org
bostonkorean@hotmail.com



한류 팬들을 위한 K-엑스포 뉴욕서 개최

인피니티 엘, 아스트로 등 아이돌 참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패션, 한식 등을 북미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케이엑스포(K-EXPO)'가 9월 30일 뉴욕시 피어 36에서 개최된다.

올댓그룹과 워너브라더스의 자회사인 드라마피버가 함께 손을 잡고 뉴욕에서 최초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인피니티 출신 배우 김명수(엘), 아스트로, A.C.E 그리고 더 로즈등이 라인업으로 확정되었다.

K-EXPO 2018 행사장인 Pier 36은 빌보드, 나이키, ESPN 이벤트 및 뷰티콘 등이 열렸던 유명 박람회장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국내외 K뷰티, K패션 업체들이 참가하며

,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케이드라마를 홍보한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북미 한류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고 다양한 한국 음식도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

국내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인 FNC의 글로벌 오디션도 같이 진행된다. 올댓 그룹은 "앞으로 꾸준한 미주 오디션을 도와 제2의 BTS(방탄소년단)가 탄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빌보드, 뉴욕타임즈 등의 미국 유명 언론사에서도 이번 K-EXPO 개최에 큰 관심을 갖고 취재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แนक्स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추석 맞이
특별 프로모션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천녹정 30g 두개 증정



Event 2

3+1 Promotion

에브리타임,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Event 3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네개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FEDEX로 주문주 1-2일 안에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전화
주문

781-238-0303

MART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소설가 신경숙 〈The Court Dancer〉 낭독회

9월 25일 보스톤대학교에서 열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소설가 신경숙씨가 이번에 새로 번역되어 출간된 소설 〈The Court Dancer〉(원제: 리진)의 낭독회를 위해 보스톤을 찾는다.

신간영문소설 〈The Court Dancer〉(낭독회는 9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보스톤대학교 신학대학 (745 Commonwealth Ave. Boston, MA) 625호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보스톤총영사관, 보스톤대 양유선 교수, 웰슬리대 고유진 교수 등의 후원으로 개최되는 낭독회 후에는 질문 및 답변 시간과 간단한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다. 좌석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2007년 작품인 〈리진〉은 신씨의 첫 역사소설로 조선 말, 5살에 아가나인으로 입궁한 고아 리진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모시는 궁녀 및 최고의 무희가 된 후 프랑스 공사와의 결혼, 유럽에서의 활동, 조선으로의 귀환 후 명성황후 시해 목격 등을 거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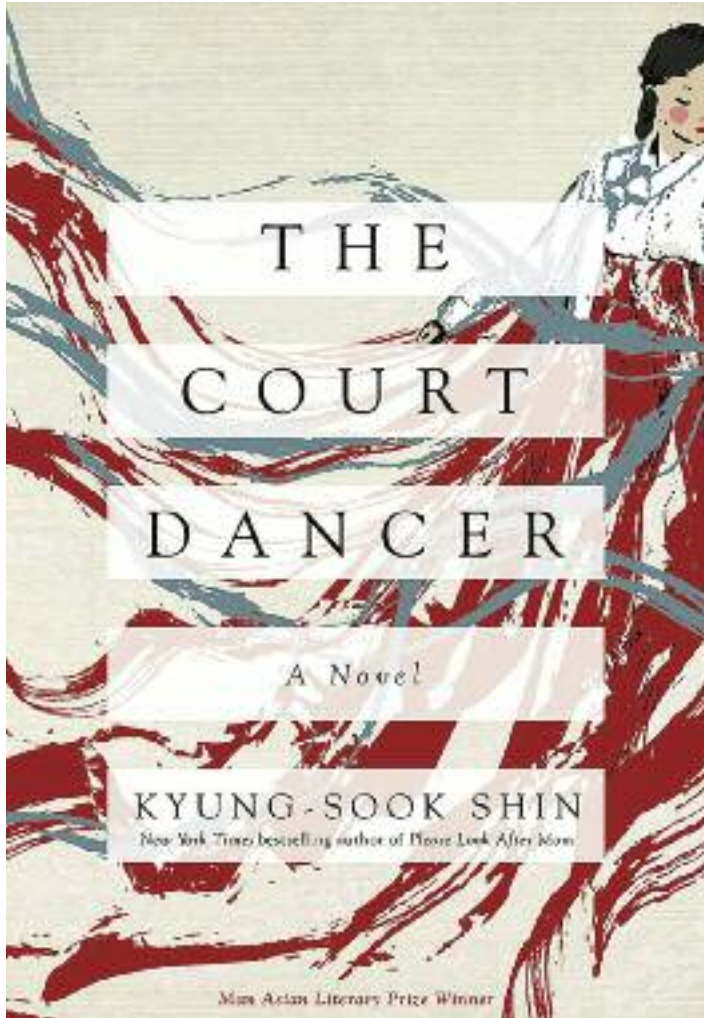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진 짐머만 (Jean Zimmerman) 은 미국 공영방송 NPR의 서평에서 ‘슬픔이 The Court Dancer의 페이지를 관통한다. 그러나 풍성한 시대 상황과 서술이 마치 실크로 만든 부채처럼 아름답게 펼쳐진다. 신경숙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작가 중의 하나가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녀의 인간 심성에 대한 섬세한 이해는 국경을 초월하며, 흘러간 시간과 다른 공간을 그녀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고 평하였다.

소설가 신경숙은 소설 〈엄마를 부탁해〉의 영문 번역판인 〈Please Look After Mom〉을 통해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2012년에 한국인 최초로 맨 아시안 문학상을 수상한 대표적인 소설가다.

낭독회에 대한 문의는 김병국 교수 (ggkim@yahoo.com, 781-367-5993)에게 하면 된다.

신경숙 작가 소설 〈The Court Dancer〉 낭독회

일시: 2018년 9월 25일 (화) 오후



6:30 - 8:30

장소: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Building Room 625

(745 Commonwealth Ave.

Boston, MA)

bostonkorean@hotmail.com

2018년 보스톤 산악회 바비큐 단풍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는 밀튼 소재 블루힐 스카일랜드 트레일에서 단풍산행 및 바비큐 행사를 10월 6일 토요일 갖는다.

산악회 김상호 회장은 “단풍철을 맞아 보스톤 시내에 가깝고도 비교적 쉬운 블루힐에서 등산을 체험함으로써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산행에는 등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비는 \$10이며 아동은 무료다. 참가자들은 6일 8시 30분까지 밀튼 소재 블루힐 Houghton Pond 주차장에 개별 집결해야 한다. 집결 후 9시부터 12시까지 산행을 하고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비큐 점심시간을 갖는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10월 3일 수요일까지 김혁신씨(617-780-9588)에게 신청하면 된다. 준비물은 등산복장, 등산화 혹은 트랙킹 슈즈, 물 등이다.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장소: 블루힐 Houghton Pond Park- ing(Milton MA소재) 아침 8시30분

(GPS: 840 Hillside st, Milton MA 02186)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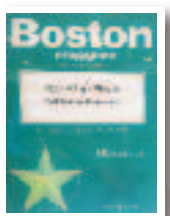
캠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캠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교실 앞을 서성이는 부모들, 새학기 시작알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가을 학기 시작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개교 43주년을 맞는 지역 최대 규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개학식을 갖고 2018~19학년도 가을학기를 9월 15일 토요일 시작했다.

윤자영 음악교사의 반주와 강다예·기예린·최재민·최재윤·한예린·한지나 학생의 선창에 따라 참석한 전교생과 교사 및 학부모들이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부르며 개학식이 시작됐다.

남선경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남일 교장은 “이번 학년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 가르쳐 줄 것”을 당부했다.

김효정 신임 학부모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세교육을 위해 한결같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한해 동안 열심히,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후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사회와 신입생 인사 및 환영에 이어 전교생과 교사들은 초급과정 리더

주민정 교사, 세종과정 리더 조진태 교사의 선창에 맞춰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 교실로 돌아가 수업이 진행됐다.

“자녀가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선생님 말씀은 잘 따르는지 염려되는 부모의 마음은 매년 변함이 없어서 이번 개학 첫날에도 교실 앞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남일 교장은 전했다.

남 교장은 “처음으로 단체생활이라는 낯선 환경을 접하게 되는 어린 연령의 학생들의 경우 학기 초에는 스스로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지만 대부분 몇 주 이내에 잘 적응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초-1과정에 입학한 신입생 학부모도 “처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거여서 걱정이 많이 했는데 아이가 첫 날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선생님의 지도에 열

금할 수 없었다.”며 “선생님들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1-2과정, 기초3-4과정, 초급1~3과정, 중급1~3과정, 고급1~3과정, 세종1~6과정·성인1~2반, 작문교육1~3부, 음악교육1~3부, 미술교육1~2부, 문화교육부 등 오전-오후 49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교양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은 학부모 대상 교양강좌들과 서예반, 생활영어반 등인데 새로 중급교실(지도 박영신)을 추가하여 제공하게 된다.

학부모회는 21일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전교생에게 송편을 준비하여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하는 송편 나누기 행사를 갖는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전체 행사는 10월 27일부터 3주간 개최되는 정기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교사로 동참하실 분은 전화 (508) 523-5389,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 홈페이지 (www.ksneusa.org)를 통해 연락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가 15일 학교 강당에서 전교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학식을 갖고 있다



김효정 학부모 회장이 개학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고대 교우회 가을 정기모임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가 9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브루클라인 소재 브룩하우스의 행사룸(Function Room)에서 2018 가을 정기모임을 개최한다.

김명근(건축 91) 회장은 “뉴잉글랜드 지역 고려대학교 모든 교우들을 2018년 가을 정기 모임에 초대하니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길 바란다”며 “특히 이번엔 새로 보스턴 지역으로 오게 된 교우들도 많이 참석하여 교우 간

의 소식과 선후배 간의 훈훈한 정담도 나누는 유익하고 푸짐한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고려대학교 뉴잉글랜드 교우회는 70년대 소모임으로 시작하여 여러 모임을 통해 교우들 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며, 또한 보스턴 한인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년 구정을 전후한 2월 그리고

학기초 9월에 정기모임 이외에 여름 캠핑, 저녁 소모임등 비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교우회에 대한 문의는 ingome22@gmail.com, 전인택(재료공 03) 총무에게 하면 된다.

장소 및 교통 문의: 김명근(617-501-2587, myoungkim@gmail.com), 전인택(857-998-3318,

ingome22@gmail.com)
일시: 2018년 9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Brookhouse, Function Room, 99 Pond Avenue, Brookline, MA 02445
회비: 직장인 \$60, 포닥연수 \$30, 학부석사박사 \$20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 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사우스 유니언 스트리트 소재 이가그릴은 19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피해지역 한인업소들 하나 둘씩 정상 영업

▶▶1면에 이어서

.이재봉 사장은 “17일 오후 가게의 오래된 음식을 모두 처분하는 것을 겨우 마무리 했으며 18일 닫고 19일부터 정상영업중” 이라고 밝혔다. “보험 약관에 정부의 통치행위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보상은 받지 못할 것 같지만 콜롬비아개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는 이재봉 사장은 이미 콜롬비아개스 측에 피해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재봉 사장은 “지난 주 목요일 13일 오후 4시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모두 대피하라고 말해 사람들이 대피를 시작했다” 고 말했다. “밖을 보니 앞과 뒤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며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여러 동절하게 됐다” 고 말했다. 오후 5시에는 전기까지 끊겨 가게를 두고 바로 철수하게 됐다고 이재봉 사장은 말했다.

로렌스 윈스랍 애비뉴 소재 가든하우스는 19일 <개스공급이 안돼 문을 닫습니다>라는 공지를 문에 붙이고 영업을 중지한 상태였다. 가든 하우스도 19일 식재료를 모두 폐기 처분했지만 아직 개스공급이 안돼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인스펙션도 받지 못한 상태다.

가든하우스 박창진 사장은 “개스 복구 일정에 대해서는 콜롬비아개스 측에서 이야기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주위의 식당 주인들과 이

야기 해본 결과 앞으로도 2주 정도 더 걸릴 것이라는 말도 있고 콜롬비아개스 측에서는 1달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다행히 콜롬비아개스 측에서는 폐기된 식재료, 세금보고된 매출, 종업원의 임금 등은 보상하게 되므로 외환상 큰 손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간의 폐점은 단골 고객의 손실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앤도버 지역 세탁소를 소유한 안병학 전 한인회장은 “개스 공급이 되지 않아 세탁물을 이웃한 지역의 세탁소에서 처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안 회장은 “당면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못했다” 고 말했다.

특히 콜롬비아개스는 이번 사태로 하부시설 점검 후 48마일의 개스관을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일에도 400여명의 직원을 개스시설 복구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스피해로 재산 등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신고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 가서 피해 내역을 신고하면 200불짜리 선불카드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https://www.columbiagasma.com/en/merrimack-valley-incident>
editor@bostonkorea.com

이화여고 동창회 총회 보스톤서 개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파크플라자 호텔에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이화여고 북미주 동창회 총회가 콜롬버스테이 주말인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보스톤 파크플라자(Park Plaza) 호텔에서 개최된다. 보스톤 이화여고 동창회(회장 김선주)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시내여행 프로그램과 조단홀 음악회 및 미술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국 및 미국 전역에서 방문하는 동문들과 친지들을 맞는다.

호텔 2층에서 총회기간 동안 진행될 동문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에는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뉴욕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던 김옥지작가와 뉴햄프셔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유수례작가의 작

품을 비롯해 지역 동문들이 만든 20여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판매될 예정이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갈라 음악회는 6일 (토) 저녁 8시에 뉴잉글랜드 컨서버토리의 조단홀에서 열린다. 보스톤 컨서버토리의 김정자 교수와 보로메오 사중주단원 김이선 교수가 독주를, 졸업생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피아노 사중주와 가야금과 피아노 듀오 연주도 있다. 또한 서울, 남가주 그리고 뉴욕에서 모인 이화합창단들이 각자의 연주 후 함께 연합합창으로 음악회를 끝마치는데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음악감독인 김기영씨가 80여명 합창단의 초청지휘 임무를 맡았

다. 이번 연주회는 한인들에게 무료로 공개된다.

총회 일정을 마친 8일 아침에는 선택여행으로 뉴햄프셔의 화이트 마운틴으로 이동하여 유서 깊은 옴니마운트워싱턴호텔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산악기차(Cograil)로 정상을 오른다. 단풍 경관을 감상한 동문들이 보스톤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경해 총회회장은 “현재 약 150명의 참석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총회에 참석을 원하는 동문들의 연락을 바라며 음악회나 미술전시회등에 보스톤 한인들의 참석을 적극 환영한다” 고 전했다. 문의는 이경해 총회 회장(508-962-2689)에게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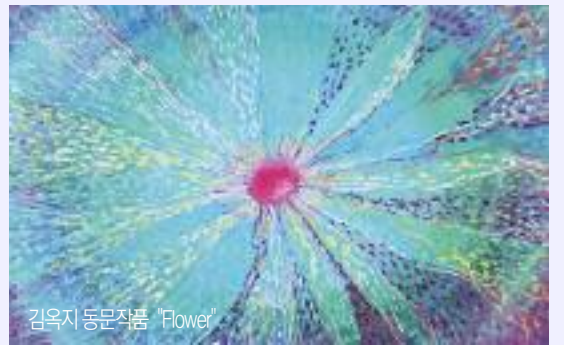
유수례 동문 작품 "Dream Bird -Time for Soar"



김이선 교수



김정자 교수



김옥지 동문작품 "Flower"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보스톤 인근의 건초마차 가이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건초마차 타기는 건초더미를 나를 때 쓰는 마차나 트랙터를 놀이 삼아 타는 것을 말한다. 가을에 꼭 빼놓지 않고 하게 되는 가족 활동 중의 하나로 농장에 사과나 호박을 따기 위해 방문했을 때 이용하게된다. 신선한 농장바람을 맞으며 마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소박한 즐거움을 나눠보자. 농장마다 건초마차의 특색이 다르므로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1. 스몰락 농장

늦은 저녁 운영되는 스몰락 농장의 건초마차는 해질녘 농장의 멋진 풍경을 지나 모닥불이 놓여져 있는 밭으로 이동한다. 애플 사이다와 도넛이 제공되며 5월부터 11월까지 주중 매일 이용할 수 있다. 낮 동안에도 마차가 운영되는데 방문객들이 넓은 농장 내에서 이동할 때 타고 내리기 위함이다.

마차 이용료 \$4-16

Smolak Farms

315 South Bradford St, North Andover, MA 01845

2. 코너스 농장

코너스 농장에는 건초마차 뿐만 아니라 옥수수 밭과 패딩 주, 호박을 테마로 한 추격전 등, 온가족을 위한 가을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입장료 포함 \$9.95-14.95



Connors Farm

30 Valley Rd, Danvers, MA 01923

3. 허니팟 힐

허니팟 힐 농장에서는 매일 건초마차가 운영되며 어린 아이들을 위한 미로와 패딩 주가 있다.



마차 이용료 \$2 (2세 이하 어린이 무료)

Honeypot Hill

138 Sudbury Rd, Stow, MA 01775

4. 킴볼 농장 - 헤버힐

킴볼 농장에서는 건초마차 외에도 조랑말을 타고 농장을 누빌 수 있다. 옥수수 밭, 거대한 크기의 미끄럼틀과 주말에 운영되는 호박 페인팅 또한 가족 모두가 즐기기에 좋은 가을 활동이다.

마차 이용료 \$2-4



Kimball Farm

791 East Broadway, Haverhill, MA 01830

5. 데이비스 팜랜드

데이비스 팜랜드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농장이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과리 건초마차를 운영하며 덩치 큰 농장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농장 길 건너편에 거대한 옥수수 밭이 있다.

입장료 포함 \$22.95

Davis Farmland

145 Redstone Hill Road, Sterling, MA 01564

6. 드럼린 농장 야생 동물 보호 구역

드럼린 농장의 건초마차는 추수 감사절 주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농장의 동물들과 호박 공예 등, 다양한 가을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마차 이용료 \$1.50-2.50 (2세 이하 무료)

Mass Audubon Drumlin Farm Wildlife Sanctuary

208 South Great Road, Lincoln, MA 01773

7. 팔레 농장

팔레 농장에서는 애플 피킹용 봉투 값에 건초마차가 포함되어있다. 아이들을 위한 건초더미 놀이터와 미니 트랙터 운전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애플 피킹 비용 \$25에 마차 이용료 포함

Parlee Farms

95 Farwell Road, Tyngsboro, MA 01879

sun@bostonkorea.com

유스그룹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민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퀸지 영생장로교회에서는 유스그룹을
인도해 주실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자격조건과 사례비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담당목사:
이순우 (617.657.9798)
qyscle@gmail.com

교회 주소: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영화 안시성 무료 티켓 이벤트 당첨자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화 <안시성>의 3행시 작성 무료 티켓 이벤트에서 총 12명의 당선자가 선정됐다. 21일 보스턴 개봉을 기념해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보스턴 코리아닷컴 및 페이스북 보스턴코리아페이지(www.facebook.com/bostonkorea1)에서 3일간 실시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에는 짧은 이벤트 시간에도 불구하고 총 41명의 독자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당선자들은 보스턴코리아(bostonkorean@hotmail.com)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보내거나, 보스턴 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할 수 있다.

이메일로 받은 티켓은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매표소에서 2장의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티켓은 9월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평일 상영분의 영화만 무료 관람가능하며 주말 영화 관람은 불가능하다.

영화 <안시성>은 추석을 앞두고 영화 예매율에서 1위를 달리며 대박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금요일부터 한국과 2일 차이로 보스턴 다운타운 소재 AMC 로우스 보스턴 커먼에서 개봉한다. 당첨자의 아이디는 다음과 같다.

JMY
안시성의 든든했던 모습은
시간속에 묻혀 희미해지었다 해도
성을 가득채웠던 고구려인의 함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백타임!
안:경도 벗고 예쁜 옷도 샀고 만만의 준비를
다 했다. 평소에 말도 못 건 너에게...음..
시:치미 뚝데고 - 무덤덤한척 안시성 이벤트
당첨 다고 메세지 할꺼야... 꼭 나와! :D
성: 성공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Boston
Korea~
훈이맘

안:안된다고 말하지마세요
시:시간을 벌써 비어났어요
성:성격이 급해 머리 가 있으려구요.
따뜻한 마음
안 : 안개 자욱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던 날
이사와서 시작했던 보스턴의 생활
시: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 나중은 창대하
리라.. 왜냐하면
성: 성공의 길에는 보스턴 코리아가 함께 걸
여가기 때문이기에...
말아토너
안 / 시성 양만준 성주님! 9월 21일,
시 / 원한 영화관에서 데이트 어때요?
성 / 주님께서 영화표 쏜세요. 제가 팝콘 씹
니다!! ♡
ccy
안:시성 영화 이벤트를 열심히 응모하고 있
다
시:힘이 날모레인데.. 이번학기도
성:적은 포기해야겠다
JulieJulie
안될거라고 하지말라고 했다
시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했다
성공할테니 두고봐라 이벤트
사벳트
안 안녕하세요 조인성입니다.
시 시사회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화의
성 성공을 위해서 모두 함께 해주시겠어요?
Leo Song
안: 안봐!
시: 시간 없어!!!! 뭐? 조인
성: 성이 나온다고? 알았다고.. 지금 삼행시
쓰고 있자나...
ESESEE
안녕하가요 나의 조국
시 간내서 가려 했는데 못가서 아쉬워요
성 성공해서 다시 갈게요! 그리고 안시성 화



이팅!
ilios
안: 안 간지 몇 년째인 추석 명절이 또다시 돌
아왔지만,
시: 시기 적절히 찾아온 보스턴코리아 이벤
트에 당첨돼서
성: 성묘가는 가족 친척 생각하며 한국영화

보고 싶다.
MDT
안: 안시성을 보스턴에서 상영 해줄터이니
시: 시간을 내어 보러오지 않겠소?
성: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hsb@bsotonkorea.com

**로웰지역 두번째 좋은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좋은 치과, 좋은 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쓰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로드 아일랜드 타운서 나이키 보이콧

나이키 새 광고 모델 콜린 캐퍼닉 때문 나이키 보이콧한 타운 의회에 비난 빚발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로드 아일랜드의 한 타운에서 스포츠 용품 전문 회사인 나이키 제품을 구입하지 말자는 결의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타운 정부에 속해 있는 관공서에서 앞으로 나이키의 제품을 보이콧 하자는 것이다. 지난 17일 저녁 노스 스미스필드 타운 의회는 나이키 제품을 보이콧 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찬성 3대 반대 2로 통과시켰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주 경찰관 출신인 존 뷰르가드 시 의회 의장은 나이키가 콜린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채용한 것이 불쾌하다며 나이키 제품 보이콧에 대해 설명했다. 캐퍼닉은 풋볼팀인 샌프란시스코 나이커스의 쿼터백이었으나 현재는 소속팀이 없는 자유 계약 신분이다.

캐퍼닉은 2016년에 이른바 'NFL 국가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다. NFL 경기가 시작될 때 국가가 연주되고 선수와 관람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캐퍼닉은 "인종 차별을 하는 나라를 위해 일어나고 싶지 않다"며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아 있었다. 캐퍼닉의 행동은 표현의 자유와 인종 차별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다. 캐퍼닉이 소속 팀을 못 찾는 것도 실력 때문이 아니라 인종 차별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나이키에서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채용하면서 논란은 다시 커졌다. 캐퍼닉이 등장하는 광고가 공개된 직후 나이키의 주가가 폭락했지만, 동시에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폭증했다.

뉴올리언스의 케너시에서도 나이키 제품을 보이콧 하자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케너시의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조언을 받아들여 보이콧 시도를 철회하였다. 미시시피 주에서는 주 경찰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서 앞으로 나이키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캐퍼닉을 광고 모델로 채용한 나이키는 법집행기관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jsi@bostonkorea.com



콜린 캐퍼닉을 모델로 내세운 나이키의 대형 광고판



마리화나 초콜릿 먹은 학생들 병원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초콜릿을 먹은 뒤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애틀보로 경찰서에 따르면 애틀보로 하이 스쿨에 재학 중인 세 명의 여학생들은 마리화나에서 추출된 식용유가 들어간 초콜릿을 먹은 뒤 몸에 이상을 느꼈다.

선 크로니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여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부모들에게 인계되었다. 학생들은 초콜릿을 먹을 때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흡연하거나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사추세츠 주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이 학생들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어떤 경로로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먹게 되었는지, 누가 이 초콜릿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애틀보로 하이 스쿨의 빌 루니 교장은 금지 약물을 복용한 학생은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SeoulSeoul.com

서울 Seoul
SeoulFoodBoston.com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축 개업 25주년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베이커 주지사와 워렌 의원 지지율 높아

11월 선거 설문 결과 2위와 큰 차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올해 11월에 있을 매사추세츠 일반 선거에 대한 첫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 되었다. 올해 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상원 의원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인 찰리 베이커 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민주당의 제이 곤잘레스 후보와 맞붙게 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베이커 주지사가 쉽게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커 주지사는 곤잘레스 후보를 설문조사에서 27%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민주당 유권자들의 2/3가 곤잘레스 후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에 맞서는 도전자는 공화당의 제프 딜 매사추세츠 주 하원 의원이다. 워렌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54%로, 24%인 딜 의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무소속의 슈바 애야 듀레이는 6%의 지지도를 얻고 있으며, 16%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설문 조사는 올해 주민 투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매사추세츠 간호사 협회에서 추진 중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주민 투표 1번 질문에 대해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33%는 반대하는 반면, 15%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매사추세츠 주의 트랜스젠더 차별 금지법에 대해 묻는 주민 투표 3번 질문에 대해서는 73%가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17%는 해당 법안의 폐지를 원했고, 9%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매사추세츠 주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전체 평균 지지도가 41%인 반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의 지지도는 이보다 한참 낮은 21%를 보였다.

이번 설문 조사는 서픽 대학과 보스턴 글로브가 공동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 사이에 매사추세츠 주민 500명을 대상을 진행하였다.

jsi@bostonkorea.com



모기 극성 매사추세츠, 첫 동부말뇌염모기 발견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 13번째 환자 발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보건부는 주내에서 올시즌 처음으로 동부 말 뇌염 (Eastern Equine Encephalitis, 이하EEE) 모기가 19일 발견됐다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EEE 감염모기는 플리머스 카운티의 레이크빌 타운에서 17일 수집된 모기중 주 공중보건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보건부는 이번 한마리 EEE모기의 발견으로 위험수위를 높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개인적인 모기 물림에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와 올해까지 EEE에 감염된 환자는 없었다. EEE는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질병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EEE감염 모기에 물리면 이 병원균이 사람에게 전달되며 가벼운

감기증세를 보이고, 심할 경우 뇌에 염증을 유발하여 척수염, 혼수 상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2012년도에는 7명이 감염되어 3명이 사망했다.

웨스트나일바이러스는 비교적 치명적인 경우가 드물지만 EEE는 감염된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좀 늦은 9월 하순에 발견됐지만 여전히 모기의 활동이 멈추는 늦가을까지는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보건부는 18일 올해 13번째 웨스트나일바이러스 감염환자가 서폭카운티에서 발견되어 입원했다고 밝혔다. 13번째 환자는 60대 여성이다. 보건부는 17일 서폭카운티의 50대 남성이 12번째 환자이며 9월 11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아직까지 입원중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찰리 베이커 주지사(좌)와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 의원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트럼프, 법무장관 없어 슬프다 총체적 위기감 피력?

WP, 위기 속 트럼프, 분노와 취약함 드러낸 표현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난 법무장관이 없다"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한 비난을 재개했다.

19일 보도된 의회전문매체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 에겐 법무장관이 없다"면서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션스 장관이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지휘권을 놓은 뒤 줄곧 그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세션스 장관의 다른 업무 성과도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문제는 행복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이 행복하지 않다"며 "세션스가 나한테 와서 매우 슬프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나를 지지한 첫 상원의원이었고 법무장관이 되길 원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세

션스 장관 해임 여부 질문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흘러가는 대로 두겠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여러 위기가 겹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장관이 없다'는 말이 세션스 장관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다.

WP는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부하 직원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그의 취약함과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본인을 비판하는 익명의 행정부 관리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와 이로 인한 탄핵 가능성 등의 위기 속에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개인적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sy@news1.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사령관에 로버트 에이브럼스...25일 청문회

(서울=뉴스1) 김윤경 기자 =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군사령관 후임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육군 전력사령부 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명됐다.

16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에이브럼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가질 예

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전 당시 미 1군단과 9군단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전 육군참모총장의 3남. 큰형과 작은형도 육군 준장과 대장으로 예편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지난 2016년 4월 30일 취임한 뒤 2년여 재임했다.

s914@news1.kr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연방대법관 인준 미투로 번져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돌파에도 영향 미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고교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으로 인해 인준 과정에서 압초에 걸린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크리스틴 블레이시 포드(51)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질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AFP통신은 17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4일 포드가 폭로한 고교시절 캐버노의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해 공청회를 연다고 보도했다.

척 그래스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포드처럼 앞으로 나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청회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며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최근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한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캐버노 지명자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발목을 잡혔다.

포드 교수는 WP에 캐버노 지명자가 1984년 한 파티에서 당시 17살이었던 자신을 썬썬 못하게 하고는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버노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나는 절대적으로 명백하게 이 혐의를 부인한다"며 "고등학교 때든 언제든 그런 일은 한 적이 없다"며 해명했다.

백악관도 17일 캐버노 지명자가 오는 18일 자신의 성폭행 의혹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캐버노 지명자를 지지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 캐버노 지명자는 '러시아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카드로 평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임명으로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을 보수 성향으로 만들어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의 기소에 대비할 계획이었다.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이 이뤄져야만 연방 대법원의 보수 성향 판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yellowapollo@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사무총장 채용 공고**

채용 공고 취지:
뉴잉글랜드 시민협회는 미국 동부사회의 정치권익 신장과 한인 2세들을 위한 비영리단체로 연례사업: 1) 협회저널 발행 2) 정치인턴 프로그램 육성 및 모금행사 3) 차세대 리더 캠퍼런스 4) 시민권취득 워크샵, 그리고 기타행사로 유권자등록과 투표권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열정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체명: 뉴 잉글랜드 한인 시민협회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주소: 160 Main St. Stoneham MA 02180
홈페이지: www.kacl-ne.org
전화번호: (617) 799-7033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1) 영주권, 시민권자, 혹은 미국내 취업 가능자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월,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택근무 가능
근무소임: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관심있으신 분은 일차적으로 시민협회 이메일
newenglandkacl@gmail.com로 이력서를
2018년 9월30일까지 보내시고,
시민협회가 신청인에게 바로 개별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트럼프 또 유가 인하 촉구 OPEC는 유가를 낮춰야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동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유가와 연계시키면서 채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중동 국가들을 보호하고, 그들은 우리 없이는 오랫동안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유가를 올리고 또 올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OPEC 독점은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는 OPEC의 감산조치를 비판하고 6월에는 "OPEC가 또 유가를 올리려는 것 같다. 인위적으로 매우 높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그간 트럼프가 세금 감면과 연방 규제 철폐로 미국 경제를 부양했다고 주장해왔는데 11월 총선을 앞두고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그 주장이 퇴색할 것으로 보고 있다. ungaungae@news1.kr



미, 2000억달러 중제품에 10% 추가관세

연말까지 25%로 점진적 인상...총 2500억달러 규모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24일부터 2000억달러(약 225조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7월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한 뒤 세 번째 관세 공격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관세율은 애초 예고됐던 25%보다는 낮은 10%다. USTR은 관세율을 25%까지 점진적

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관세대상 물품은 300여개에 달한다.

미·중 양국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총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로써 미국은 이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 제품은 2500억달러(281조원)에 달하게 됐다.

wonjun44@news1.kr



마리안 레이크 JP모건 최고재무책임자(CFO)

JP모건 다이먼 CEO 유력 후계자는 싱글맘

(로이터=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월가의 대표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자 최고경영자(CEO)를 이을 유력한 인물로 최고 재무책임자(CFO) 마리안 레이크(49)가 거론되고 있다. 영국 억양에 세 아이를 둔 싱글맘인 레이크 CFO는 은행의 각 사업부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직원 식당까지 이르는 광범한 문제들을 감독해오며 다이먼 회장의 신임을 쌓았다.

13년간 JP모건을 이끌어온 다이먼 회장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는 월가의 큰 관심이 었다. 다이먼 회장은 주요 은행장들 중 가장 긴 임기를 자랑하며 금융위기 당시에도 JP모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아니라 규제당국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의 정치인들에 맞서왔다.

지난 1월에는 약 5년후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후임이 누가 될지 또다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그의 긴 임기 동안 다른 유력 후보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다이먼 회장의 노여움을 사서 JP모건을 떠나는 동안 레이크 CFO가 부상했다고 보고 있다.

다이먼 회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발언했다가 구설에 오르

자 대선 출마는 안한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2013년 CFO로 승진한 레이크는 런던지사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7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이른바 '런던 고래' 사건을 무난히 처리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19년 동안 JP모건의 도매업과 소매업 모두에서 일한 인물이다. 다이먼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레이크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 있는 임원"이라고 묘사했다.

메릴랜드 출생인 레이크는 30세의 나이에 JP모건 런던 사무소의 신용 트레이딩 CFO로 일했다. 그후 2004년 JP모건과뱅크원(Bank One)이 합병되면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레이크는 42세에 배우자가 없어도 부모가 되고 싶어 대리모를 통해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레이크는 "아이를 갖는 것이 지금 당장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쉽다"면서 "이같은 인생을 바꾸는 큰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그저 그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무서운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은행 분석가들도 레이크 CFO에 대해서 "가장 재능 있는 CFO중의 한명"이라면서 높게 평가했다.

ungaungae@news1.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통상대출 나의노후? 케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주재원 비자(L-2)
- ✓ 특기자 비자(O-1, P-1)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취업이민
- ✓ 교수/연구직 이민
- ✓ 투자비자(E-2)
- ✓ 투자이민(EB-5)
- ✓ 가족초청이민
- ✓ 시민권 신청
- ✓ 주방재판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a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김정은 위원장, 올해 안 서울방문...정상 합의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 철도와 도로 착공식...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
文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트럼프 만나 결과 공유할듯...통화 가능성도

(평양·서울=뉴스1) 평양공동취재단, 조소영, 정상훈 기자 = 남북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연다. 무대는 대한민국 서울이다. 남북정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가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양 정상은 합의한 '평양선언'에는 이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 등을 통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 등 민족경제를 위한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한반도 비핵화 내용 등이 담겼다.

양 정상은 특히 북측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또한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면서 막혀있던 '북미대화의 물고'를 뚫었다. 이날 선언문 서명식과 이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백화원 영빈관에서 70여분간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가졌다.

전날(18일) 1차 회담은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약 120분간 열렸다. 양 정상은 이후 백화원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 뒤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정상은 곧바로 선언문에 관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위원장이 먼저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겨레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극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김 위원장의 언급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됐다"며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 참여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는 모습

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도 취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며 "환경이 조성되는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서신왕래·화상상봉을 비롯해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과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를 치르기 위한 구체적 준비도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는 남북정상이 회견에서 언급한 이같은 내용들이 좀 더 세세하게 담겼다.

cho11757@news1.kr

북한 지도자들 큰 일 앞두고 백두산 방문, 이번엔 문 대통령과 함께

▶▶1면에 이어서

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이 걸음이 되풀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남쪽 일반 국민들도 백두산으로 관광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 정상이 최초로 백두산을 방문한 가운데, 당초 구름이 낄 것이라는 예보와 달리 푸르고 맑게 갠 날씨도 화제가 됐다.

평양공동취재단이 이날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백두산의 날씨는 매우 맑고 화창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날씨 덕에 백두산 천지에는 이를 둘러싼 봉우리가 그대로 투영되는 등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했다.

북한, 즉 우리 영토를 통해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바람을 수차례 밝힌 바 있는 문 대통령은

화창한 백두산 날씨에 함박웃음을 보였다. 김 위원장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백두산 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다.

백두산의 하늘은 1년에 20일도 채 개지 않기로 유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올만큼, 백두산 정상부의 날씨는 변덕스러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렇기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양 정상은 이날 찾은 백두산의 날씨는 운 좋게도 화창했다.

함께 백두산에 오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번에 서울 답방을 오시면 한라산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하자 리설주 여사는 "우리나라 옛말에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고 화답했다.

새봄 맞이는 오빠 스시와 함께!



사시미만 생각날때: 우럭, 광어, 도다리 각 \$60 (스끼다시 3종류 제공)
회덮밥, 한치회무침, 생선쌈 매운탕도 강추!

★
확장
오픈
★

더 넓은 공간에서
맛있게 즐기세요!

한국식 회정식:

4인이상 \$40/1인, 3인 각 \$50, 2인 각\$60

사시미와 매운탕, 스끼다시, 생굴, 성게알, 대합, 생선찜, 아구간, 참치초밥, 불마끼, 참치타다끼, 방어목살구이, 새우튀김, 열빙어튀김, 오징어튀김, 스킨버터구이, 해물라면, 아이스크림

한국식 회정식을 즐기세요!

yelp* yelp가 선정한 BOSTON BEST SUSHI!

OPPA SUSHI

617.202.3808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SEP. 21 - SEP. 27, 2018

추석 맞이 대세일

CELEBRATE THE FULL MOON HARVEST
H마트가 드리는 풍성한 가을 추석 세일! 올해 추석은 9월 24일입니다.

CUTE BEAR SWEET RICE CAKE (SONGPYEON)

H마트와 함께하는 추석맞이(송편)만들기! 올 추석엔 좀 더 색다른 캐릭터 송편으로 추석 만찬상을 빛내주세요!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RESTAURANTEU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info@marketbistro.com



TEDDY BEAR KOREAN TRADITIONAL HOLIDAY TREATS FOR HUGS FROM EVERYONE IN THE FAMILY

Follow us @hmartofficial

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미디엄 \$1.99 NEW CROP	Ginger 생강 \$1.49	White Cabbage 화이트 케비지 \$0.99	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 \$1.49	Gobo 우엉 \$1.99
Nagaimo 일본 마 \$4.99	Kabacha 단호박 \$0.88	Navel Orange (56S) 네이블 오렌지 4\$1.99 ea./for	Packed Garlic 팩마늘 5oz/pkg 2\$3 pkg./for	Black Plum 검정 지두 \$1.4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Ribeye Steak 등심/스테이크 \$9.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뼈없는 닭/사태 \$2.99
FRESH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 \$7.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소금구이용 돼지 생삼겹살 \$5.99
FRESH Beef Ox Tail 생소꼬리 \$10.99	Marinated Sliced Beef Ribeye Roll-Roll 양념(소)고기 \$6.99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단 꽃게 3.7-5 lbs. - pkg. \$6.99	Premium Salted Yellow Croaker 박스지반참조기 5.5 lbs/pkg. \$34.99 FRI/SAT/SUN ONLY 21/22/23 ONLY
TONGTONGBAY Dried Dashi Anchovy 통통배 다시멸치 2 lbs/pkg. \$24.99	SUNMUP Jeju Bellfish 순협/제주 은갈치 4.5 lbs/pkg. \$4.99 FRI/SAT/SUN ONLY 21/22/23 ONLY
Golden Pompano 금병어 600-800g \$2.99 FRI/SAT/SUN ONLY 21/22/23 ONLY	Monkfish Tail 마구/참돔 \$3.99 FRI/SAT/SUN ONLY 21/22/23 ONLY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TAMAKI Gold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타마키 골드 쌀 15 lbs. \$23.99	HAIJUREUM Dried Shiitake Mushroom 해오름 표고버섯 1 lb. \$10.99
CJ Cooked White Rice CJ맛있는 흰쌀 7.4oz x 12ea./box \$12.99	DONGSUN Maxum Coffee Mix 동서 맥심 커피믹스 Original/Mocha/Cold Milk - 1000kcal/box \$12.99

2018년 한마루 고국통신판매 추석 선물세트

최대 35%할인/9월 30일까지
공요로운 추석, 당신의 고마운 마음을 H마트가 한국에 전달해드립니다.

전화주문 1-800-648-0980
인터넷주문 www.hmart.com

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이 쌀 15 lbs. \$9.99	MARUKOME Plant Based Protein 마루코미 달걀 소스 Also Chik Sweet & Sour - 9oz. \$2.99	HOUSE FOODS Vamper Curry 하우스푸드 바몬트 카레 All Varieties 9.11oz. 2\$5	HAIJUREUM Korean Style Beef BBQ Sauce 해오름 소불고기/소갈비 양념 Kalbi/Galbi - 2.11 lbs. \$3.99	BERKUL Korean Frying Mix/Pancake Mix 백설 휘핑크림/부침가루 2.2 lbs. \$1.99
GOMPRO Wheat Flour 곰프로 밀가루 5.5 lbs. \$3.99	HAIJUREUM Yellow Croaker 해오름 황금돔 2.5 lbs. 2\$5	HAIJUREUM Citron Iles with Honey 해오름 유자차 2.2 lbs. \$4.99	OSAKI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s. \$5.99	
HAIJUREUM Peanut Crunch Snack 해오름 땅콩산 11.4oz. \$2.99	CALPICO Drink 칼피코 음료 All Varieties 1.5L. \$3.99	KOTO SMART Multi-Pressure Cooker 코토 스마트 압력 주전자 5.8qt. \$89.99	LIVEN Electric Shabu Pot 리벤 전기 샤브샤브 냄비 11.3qt/19.3lb/8.5kg. \$39.99	Hwasu Soju Glasses 오갈 소주잔 5종 세트 6pcs. \$6.99 -50.00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prints/mistake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nus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nus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FRI/SAT/SUN ONLY)
H-MART BURLINGTON STORE: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020 / STORE HOURS: Sun - Thur (Sun - 9am / Fri - Sat 8am - 10pm)

9·13대책 악발 먹히나, 1억 낮춘 급매물에도 매수 주춤

최소 수천만원 빠진 매물에도 매수자 관망세
추석 이후에도 계속될 땐 가격 하락 확대될 수도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9·13대책을 기점으로 일주일 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대책 전엔 매물이 귀해서 높은 값에 나와도 서로 잡으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값을 내린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들이 관망하면서 쉽게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

정부의 고강도 대출·세금 규제인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 이 지나면서 주택시장 광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대 1억원 이상 몸값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지만 활발하던 매수문의가 주춤해지면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 주택형이 최근 17억7000만~17억8000만원대에도 매물이 나오고 있다. 종전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내린 값이다. 해당 주택형은 지난 11일 저층 매물이 18억3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되고 호가가 19억원대까지 올라 있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처음엔 저층 내부 상태가 안좋은 매물이 값을 낮춰 나왔는데 이후 로열층 수리가 된 매물도 호가를 낮추고 있다"며 "하지만 매수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선뜻 나서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송파구 주요 단지에서도 수천만원 이상 가격을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으나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잠실 엘스·리센츠 아파트의 경우 18억 초반까지 호가되던 전용면적 84㎡ 주택형이 17억 중반 밑으로 떨어졌지만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 19억2000만원까지 호가되던 84㎡ 주택형이 19억원 아래로도 나오고 있지만 분위기는 조용하다.

강북권 인기 지역인 마용성(마포

·용산·성동구)에서도 최근 급등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브라운스톤 전용 114㎡의 경우 15억5000만원까지 호가되던 것이 14억원 후반대로 떨어졌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신아파트 전용 59㎡는 7억원에 거래되던 것이 6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는 사려고 해도 매물이 귀했던 9·13 대책 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대책 직전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매수 경쟁이 치열했다. 일부 인기지역에서는 매물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진풍경까지 나타났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 전체 아파트 단지 중 약 10% 가량에서 호가 하락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매수자들도 예전과 같이 달려들지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남권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의 모습

동산세가 강화되고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예고되면서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집주인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북권에서는 종부세 부담보다는 대출제한이 크게 영향을 미쳐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매수세가 줄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다수의 단지가 호가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전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도 매수

세가 회복되지 않고 관망이 지속될 경우 호가 하락 폭이 커지면서, 가격을 낮추는 단지가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 아직은 시장의 방향을 판단하기 이르다"며 "21일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추석을 보낸 뒤 10월쯤 가면 시장의 움직임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jhkuk@news1.kr

자영업자 대출 빠르게 증가...반년간 41조 늘어 600조 육박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올해 들어 자영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8년 9월 금융안정상황'을 보면 지난 2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549조2000억원)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지난해 말 14.4%에서 2분기 15.6%로 더 커졌다.

업종별 대출 비중을 보면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업 40.9%, 도소매업 13.2%, 음식숙박업 8.8%, 제조업 7.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8.3% 늘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누적 투자수익률은 아파트와 주택이 각각 55.8%, 48.9%로 주식(30.1%) 은행정기예금(36.3%)을 상회했다.

차주별 자영업자의 대출 분포를 보면 소득과 신용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았다. 지난 2분기 말 자영업자 전체 대출 중 고소득과 고신용 차주가 각각 75.1%, 72.8%를 차지했

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9%로 가계대출 연체율(0.25%)을 소폭 웃돌았지만 중소기업인 연체율(0.64%)보다는 낮았다.

자영업자의 자산과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커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 차주의 대출 규모는 2014년 말 12조원에서 2분기 21조3000억원으로 늘었으며, 비중도 3.8%에서 4.3%로 커져 부채구조의 취약성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min785@news1.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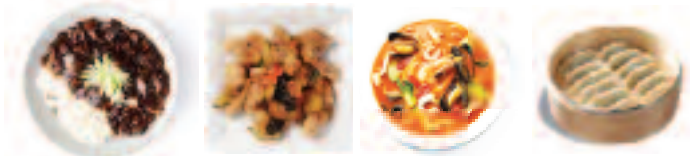
직접 만든 육수가 일품인 냉면

BAB KOREAN BISTRO Brookline OPEN

보스톤에서 만나보시기 어려웠던 **한식 메뉴**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중화 요리**를 이제 보스톤에서 즐기세요.

대하짬과 보양전골 등,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수 있습니다.

짜장면, 볶음짬뽕, 사천탕수육
돼지순대국밥, 순대곱창전골
수제 만두, 냉면



MON - THU 11:30 - 10:00
FRI & SAT 11:30 - 10:30
SUN 11:00 - 9:00

TEL 617.383.5575
FAX 617.505.6458

1374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 원 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보스톤 서쪽, 새기계, 좋은 위치. 연매상 32만불 이상
플랜트 + 드롭오프 스토어

Asking \$160,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보스톤 북쪽, 3760 스퀘어피트, 새로 단장된 가게

Asking \$490,000

Residential



주거 렌트

에버렛에 위치,
1,700 Sq. Ft.
넓은 주차공간
보스톤과 인접한 위치

월 렌트
\$2,4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369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Plaza 에 Dunkin Donuts 입주.
Lots of foot traffic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Fish 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물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299,000

Business



드롭오프 스토어 매매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Asking \$50,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Shrewsbury Full Plant 세탁소
White City Mall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Lots of foot traffic
안정된 수입

Asking \$399,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물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인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Single Family
7 Lilac Court, Acton, MA
Asking price: \$420,000
Listing Agent: Jenn Harloon
Phone: 508.331.2092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2 Antique Circle, Sudbury, MA
Asking: \$929,000
Listing Agent: Bill Glanton
Phone: 978.394.2017



Just listed: Condominium
1 Franklin St. Unit 1205
Boston, MA 02110
Asking price: \$1,725,000
Listing Agent: Clara Paik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4 Duston Lane, Acton, MA
Asking: \$2,995,000
Listing Agent: Joe Azzolino
Phone: 978.828.7062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Steve Son
617.290.0623



Ken Tlagae
617.959.5500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Frank Mcmanus
317.690.6187

NEW LISTINGS



Just listed: Single family
65 Croton Street
Wellesley, MA
Asking price: \$1,6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84 Wellesley Road
Belmont, MA
Asking price: \$2,800,000
Listing Agent: Frank Mcmanus



Just listed: Single family
292 Mendon Road
Sut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Single family
160 Clinton Street
Hopkinton, MA
Asking price: \$589,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Restaurant w/ Liquor License
Tyngsborough, MA
Asking price: \$145,000
Listing Agent: Ken Tlagae



Just listed: Multifamily
23 Everett St.
Boston, MA 02128
Asking price: \$850,000
Listing Agent: Vicky Xiao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M. Keith Peifer
304.963.2923



Johanna Parlon
978.501.475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턴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창립자이자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하버드와 MIT에서 수석 입학사정관(Senior Admissions Officer)을 역임하였습니다. 보스턴 아카데미는 12학년 학생들의 대학 지원과 6학년에서 11학년 학생들의 교육 가이드 및 카운슬링을 전문으로 하는 유수의 교육 컨설팅 회사입니다. 상세 정보 Tel: (617) 497-7700, Email: info@bostonacademic.com 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Homepage: www.BostonAcademic.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프레젠테이션이 전부다(Presentation is everything)

과거 필자는 뉴저지에 사는 어떤 어머니가 너무나 황급하게 걸어온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 때가 4월 중순이었고, 그 어머니의 12학년짜리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로부터 합격 여부를 막 통지 받고 난 뒤였다. 그가 지원한 대학은 8개 아이비리그 전부와 NYU(New York University)였는데, NYU는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이 어머니와 아들 앤드류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학교 여러 곳에 합격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앤드류는 전과목 A학점으로 전교 1등인데다가 SAT도 거의 만점이었으며, 학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면서 수학팀의 주장이었고, 더구나 핸디 5.2의 실력으로 지역단위 골프시합에 참가할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주변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앤드류는 적어도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절반 정도는 쉽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자는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필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앤드류는 NYU에만 합격하고 아이비리그 어느 대학에서도 합격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겨우 코넬과 하버드에 후보자 명단(Waitlist)에 올라 있었던 것이었다. 너무나 화가 나기도 하고 충격을 받기도 한 이들은 앤드류가 무얼 잘못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필자 본인도 그 설명을 듣고는 잠시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설명하는 앤드류는 필자가 그

동안 만나본 수많은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 가운데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교 성적과 과외활동 경력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학생이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에 불합격하고 오직 코넬과 하버드에 대기후보가 되었을 때는 무슨 그만한 논리적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필자는 알았다. 그래서 필자는 앤드류 어머니에게 우선 아들의 지원서류 모두를 팩스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필자가 직접 그 서류를 검토하여 불합격한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필자는 앤드류의 지원서류를 검토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앤드류가 왜 합격 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앤드류의 지원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필자의 마음은 무거워지지만 했고, 필자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을 이 모자에게 필자의 솔직한 마음을 설명하기가 두렵기까지 하였다. 지원서류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앤드류는 모든 일에 너무나 열심히, 엄청난 업적을 성취한 훌륭한 젊은이임에는 틀림없었다. 부모님들 또한 자식에게 좋은 경험을 쌓기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잘 키우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했던 것도 잘 알 수 있었다. 이제 앤드류가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그들의 꿈이 왜 실패했는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필자가 할 수 밖에 없었다. 대학진학 컨설턴트로서 이런 때가 제일 접하기 두려운 상황이다.

앤드류가 이런 성과는 너무나 뛰어나고

인상적이었지만 이런 모든 것과 자신을 나타내게 하는 지원서류는 너무나 허술하고 효율적이지 못했다. 에세이는 산만하고 너무 길었다 (“짧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려 2페이지였다!). 에세이의 주제도 재미없고 아시아계 학생들이 주로 다루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활동목록도 너무 길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과외활동들이 불필요한 것들 가운데 파묻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3장만 요구하는 추천서도 8장이나 제출하였는데,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똑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앤드류를 만나 보았는데, 앤드류는 너무나 말이 없고 과묵한 아이였다. 대화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했고, 자신을 설득력있게 설명한다거나 자신의 열정을 필자에게 표현할 능력이 떨어졌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앤드류의 교사 추천서와 입학담당관 인터뷰가 지원서류에서 가장 큰 약점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앤드류의 지원서류는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은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약점은 보완하며, 왜 자신이 그 학교에서 꼭 뽑아야만 할 뛰어난 학생인지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데 실패하였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그 시점에서는 필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다. 비록 온 가족이 5시간이나 걸려서 필자를 찾아 보스턴까지 와서 하버드와 코넬에 어필하는 것의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무엇을 해보기에는 시

간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올해에는 아이비리그에서 후보자명단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것이다.

대학지원서는 기본적으로 4페이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 가운데서 4페이지에 채울 것을 매우 세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플루트 레슨, 숙제, 클럽활동, 축구 연습 등에 쏟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잘 압축, 요약하여 4페이지에 정리해야 한다. 지원서 작성과정은 변호사의 역할과 비교하면 잘 이해가 될 것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고용된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변호사는 재판관과 배심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실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재판관과 배심원들 설득에 성공한다면 그는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 변호사의 말한 마디에 재판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듯이 학생들이 지원서에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케이스에 오직 4페이지만 허용된다. 바로 이 때문에 지원서에 기록하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한 것이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프레젠테이션이 전부다 (Presentation is everything)” 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변호사가 하는 것처럼 학생들은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사서 최종 합격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잘 정리하여 그것을 가장 설득력 있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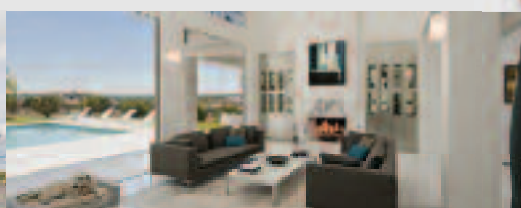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턴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2 family house, Newton 투자나 거주에 적합 4 Pearl-Peabody St. ASKING \$1,490,000	 2 family house, Newton good for investment 48-50 Lexington St. ASKING \$1,250,000	 북부 Boston의 성업중인 Drop Shop을 원하십니까? 단돈 \$50,000 ASKING \$50,000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로드아일랜드 "뉴-포트 맨손" 관광지역 한 복판에 성업중인 스시 식당 ASKING \$100,000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Anna Jung
617.780.1675


Sung Bin Oh
978.505.3736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 ASKING \$200,000
--	--	---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Korean BBQ • Korean Buffet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F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고장신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교인회	978-407-7554
국제대한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군전우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선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978-274-5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한인회	781-854-8880
세탁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E협회	781-424-5269
대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대화(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항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항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상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R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보스톤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산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781-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에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뱀열교회	978-274-2369
엠헤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헤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트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트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룬터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권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건강식품	
보스톤정판정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밍사이딩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셀(南)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틱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퓨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치희 헤어(Bloss Image)	617-818-5596
헤어엔드그레이스살롱	508-879-7177
MIN-AH MAKEUP	97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하버드병원(노이재음)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치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완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그룹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471-2184
손영권치과	978-459-0594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랜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Smart Dental	978-322-4914
ACTON 살롱치	978-263-4592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문허어림 보정기	781-573-3277
보석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보험	
이동환 보험	781-325-3406
조준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초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윤광현 생명보험	978-390-4738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운 Realtor	617-678-9330
나원대 부동산	617-642-3156
뉴스타부동산	781-654-5281
백영주부동산	978-239-0141
손득한	617-290-0623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손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안 수진 부동산	339-224-1512
애나정 뉴스타부동산	617-780-1675
이경해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해운부동산(EXT. 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프루덴셜(이호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사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253-1800
스튜디오 주니	617-460-3227
생선가게	
매터팬피시마켓	617-298-2260
매일잔치피시	781-862-7984
보스톤피시	617-282-2980
브룩린피시마켓	508-

목욕하는 여인이라니?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대에 꽤 유명했던 어떤 교수님께서 오역논란에 시달린 적이 있다. 초서가 쓴 <켄터베리 이야기>에 나오는 The Wife of Bath를 ‘목욕하는 아낙네’라 번역했기 때문이었다. 역시 번역은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마저 든다. 번역이란 아무리 잘해도 욕먹기 딱 좋은 일이다. 오죽하면 traduttore, traditore(번역은 반역)이란 이태리어 구절이 생겨났을까 싶다. 사족이지만 두운을 살린 우리말 번역은 원어의 두운을 반영한 재치 있는 번역이 아닐 수 없다.

얼핏 보면 The Wife of Bath는 정말 ‘목욕하는 아낙네’처럼 보이기도 한다. bath는 ‘목욕’이란 뜻이니까. 하지만 그 교수님이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는 피할 수 있었다. 우선 ‘목욕하는’이란 수식어가 되려면 영어에서 굳이 of bath와 같은 형태로 쓸 이유가 없다. 오히려 bathing과 같은 현재분사가 더 자연스럽다. a bathing lady처럼 말이다. 게다가 이 분은 이 책의 배경을 전

혀 고려하지 않았고 영국의 지리에 대해서도 연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Bath는 영국의 지명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졌듯이 로마제국은 가는 곳마다 도로와 목욕탕과 수로를 건설했다. 북쪽으로는 멀리 스코틀랜드부터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을 정복하더라도 그곳에 목욕탕과 도로와 수로를 건설했다. 필자는 방송녹화차 튀니지를 비롯한 이웃 나라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허허벌판에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건설한 목욕탕 유적지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다. Bath는 말하자면 로마의 목욕탕이 있었던 데서 유래한 마을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옳은 번역은 ‘바쓰의 부인’ 혹은 ‘바쓰의 아낙네’이다. 미국영어식으로 발음해서 ‘배쓰의 부인’이라 해도 상관없다. 아무튼 지명을 번역할 필요는 없다. New York을 발음대로 ‘뉴욕’이라 하지 달리 어떻게 번역하겠는가?

비슷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지명이 Reading이다. 실제로 어떤 대학의 영문과

에 University of Reading 출신의 한 교수지망생이 지원을 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모든 교수들이 마음속으로 ‘독서대학? 이게 도대체 뭘 대학일까?’ 의아해하고 있던 중에 한 용감한 (혹은 눈치 없는) 교수가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독서대학을 졸업하셨나요?” 어리둥절해하던 지원자가 독서대학이 아니고 영국의 레딩에 있는 레딩대학이라고 했다.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하는 표정들이 풀리지 않아 그 지원자가 우리나라 축구선수 설기현이 뛰었던 레딩이라고 하자 모두들 ‘아하’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렇지, 대학이 사람도 아닌데 무슨 독서를 하겠는가? 물론 매사추세츠 주의 레딩(Reading)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리딩’이라고 발음한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그런지 구글의 한국어 번역 지도에도 ‘리딩’으로 잘못 표기돼 있다.

지명뿐 아니라 인명이라도 우리는 아는 단어를 보면 뜻을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물론 Smith란 이름은 먼 옛날 ‘대장장이’에서, Archer는 ‘궁수’에서,

Brewer는 ‘술장수’에서 유래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김씨, 박씨 등의 성에 특별한 뜻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이름에도 의미부여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자우환이라 아는 단어가 성씨일 때 왠지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필자의 지인들 중에는 Barber, Painter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물론 이발사(barber), 화가(painter)가 아니다. 필자는 그들을 볼 때마다 Mr. Non-barber Barber(이발사 아닌 바버씨), Mr. Non-painter Painter(화가 아닌 페인터씨)라 부르곤 한다. 옛날에 들은 유머가 생각난다. 백인들이 인디언과 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한 백인이 인디언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그에게 falling rock을 조심하라고 충고를 했다. 인디언 마을을 지나는 동안 전혀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볼 수 없어서 기우였다고 안심하면서 천천히 말을 타고 가던 그는 그만 인디언이 쏜 화살을 맞고 죽었다. 그 인디언 이름이 Falling Rock이었다.

보스톤 국제선 셸터 모금 골프 대회

NAICFM-Boston Fundraiser Golf Tournament Shelter for Peace House

올해는 견디기 힘들도록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이었지만 벌써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문턱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이 지나면 분명히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없는 사람들은 더 춥고 더 배가 고플거라는 염려속에서 우리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절실한 마음에서 올가을 처음으로 국제선에서 셸터모금 골프대회로 모금하여 힘들고 집없는 이민자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성원 부탁 드리면서 알밤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모금 골프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즐거운 골프개임을 즐기시며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하시며 보람된 교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초대드립니다.

국제선 임원 일동



SATURDAY, OCTOBER 13, 2018 AT 12:30 PM

Merrimack Country Golf Club : 210 Howe St. Methuen, MA 01844

\$120.00 Per Golfer Golf Package Includes:

- Golf Carts
- Lunch & Drink
- Dinner @ Merrimack golf club house function hall
- Awards/Raffle/ Auction Items

Check Payable to :NAICFM-BOSTON
Mail to : 70 Howe St. Methuen, MA 01844
Contact: 978-828-1383 Insook Vallario
or Bob Campbell 978-833-0065
Join celebration Dinner for \$40.00

HOLE SPONSORS

Young Sim Middleton, Jin Hee Couter, Insook Vallario, Lee LeBlanc, Kim Walsh(Q. Cleaners), Chong A Arnold(We Care Maine), Myung Don Yang, Chong Ju Kim(Qwe Care New Hampshire), Kim Day(Daven Cleaners), Yu Dae Kun Son(Panda Cleaners), Myung Hee Davis, Kim Chang sik(New York Cleaners), An/Campbell(Green Grid Energy), JC Claeners, An Kyung soon(Ann's Cleaners), Happy Time Laundromat, Eric An, Robert Campbell, Rob Barnett, Haeyoon Jacobus(Keller Williams Realtor), Joohyung Lee(Sunday General Store), BostonKorea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s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시 시작 30분전

예비신자 교리반
9월 26일(수) 8pm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HAPPY
해피돌상

고품질 전통상 대머 (배달가능, 당일)
한국 최대의 전국적인 전통상 전문점, 소문난 내 바자회용 장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저렴하고 푸짐하게!

- 문턱을 넘는 특별한 한식
- 다양한 수제 떡, 떡볶이
- 일대일 맞춤으로 만든 기차, 케이크
- 국내산 유기농 재료 사용
- 철저하고 안전한 나뭇잎
- 다양한 문화를 소개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턴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추석맞이 대세일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가 꼼꼼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제품들만 권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입하세요!

안마의자 전문 기술자 상시대기
5년간 개런티 + 자체 제작 고급 PAD (\$150 상당) 무료제공

파나소닉 MA70
특별세일!

하루 2시간만으로도 고급 안마의자를 구입하세요!
\$2.9
Reg \$7,000 **\$81** /월 60개월 + Tax



정호의 찬스!

미 최대 규모 명품 안마의자 전시장 하이트론스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INADA DREAMWAVE

106개 에어백으로 혈관을 자극해
몸에 쌓인 노폐물을 풀어주고,
노인성 질환, 당뇨병자에게
특히 효과가 탁월합니다.

INADA DREAMWAVE
\$250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J7

3명의 프로 안마사가 동시에 156가지
기술을 발휘, 단순한 롤러가 아닌
마사지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완벽하게 재현한 강력한 안마의자



Panasonic MAJ7
\$167 /월 60개월 + Tax

명품마사지의자
INADA NEST
\$125 /월 48개월 + Tax



명품마사지의자
INADA FLEX 3S
\$125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73
\$142 /월 48개월 + Tax



OREST OS 5000
\$114 /월 48개월 + Tax



PANASONIC 30007
\$100 /월 36개월 + Tax



POSITIVE POSTURE BRIO
\$104 /월 48개월 + Tax



OSAKI OS Pro Maestro
\$152 /월 36개월 + Tax



FUJIIRYOKI FJ 7900
\$148 /월 36개월 + Tax



COZZIA CZ 710 Qi SE
\$166 /월 36개월 + Tax



PANASONIC MA10
\$83 /월 24개월 + Tax



60년 전통의 이태리 명품 침대 매트리스 플렉스

목디스크·허리디스크 및 각종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침실문화의 혁명!
모션베드 출시!

magniflex
Sleep is life's greatest pleasure

어떤상황에서도 허리를 깨끗하게 세워주는
인체공학 의자

미동체어

사람을 중심으로 의자를 만든다!

미동체어의 기술은 장시간 앉아 있는 회사원, 학생에게
자세를 유도/제정합니다. 슬리핑 기능을 활용하여 척추를
건강하게 하고, 바른자세를 잡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 Wing Mechanism** - 장시간 학업/업무로 인한 목/어깨/팔꿈치/손목의 피로감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 Sliding Mechanism** - 앉은 자세를 조절하여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고,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자세를 바로잡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미동체어 입하 Special Price ~~\$890~~ **\$599**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02420

781-862-6867

ORDER NOW
www.hitrons.com

NJ Main Branch

1 Remsen Pl,
Ridgefield NJ 07657
201-941-0024
(Ridgefield Hanyang Mall)

Bethel Health - NY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Korea Village 1st fl.)

Bethel Health - NJ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Inside HanNam Mart)

PA Branch

1222 Welsh Rd, Unit B5,
North Wales PA 19454
215-368-1070
(Assi Plaza PA)

MD Branch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

Mattress- NJ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201-941-0010
(Next to the Dunkin Donuts)

'최고의 이혼' 차태현X배두나, 믿고보는 '부부 케미'

(서울=뉴스1스타) 강고은 기자 = ‘최고의 이혼’ 차태현과 배두나, 예측 불가한 케미의 부부가 온다.

19일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최고의 이혼' 제작진은 차태현과 배두나의 티격태격 부부 일상을 공개했다.

'최고의 이혼'은 '결혼은 정말 사랑의 완성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사랑, 결혼, 가족에 대한 남녀의 생각 차이를 유쾌하고 솔직하게 그리는 러브 코미디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예고하며 2018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고의 이혼'에는 극과 극 성격의 부부가 등장한다. 조석무(차태현 분)와 강휘루(배두나 분)가 그 주인공. 간간하고 조금은 짜질한 남자 조석무. 그에 비해 웃음 많고 덜렁거리는 여자 강휘루. 하나부터 열까지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보여줄 매력과 케미는 '최고의 이혼'의 다양한 재미와 공감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차태현은 고무장갑을 낀 채 설거지를 하는 모습. 구시렁구시렁 잔소리를 함과 동시에, 치우는 것이 일상인 듯 자연스러운 차태현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에 반해 배두나는 여유가 가득하다. 소파에 앉아 고양이와 놀고



있는 배두나의 모습이 매사 느긋한 그녀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고, 또 이혼 후 동거를 하게 된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들 부부의 일상은 시청자들에게 하여금 현실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

어떤 캐릭터든 자신의 것으로 소화

하는 두 배우 차태현과 배두나가 그려낼 현실적인 캐릭터가 리얼리티한 스토리에 흡인력을 더하며 '최고의 이혼' 예비 시청자들에게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최고의 이혼'은 오는 10월 8일 처음 방송된다.

kang_goeun@news1.kr



브리 라슨, '캡틴 마블' 출격 준비? "엄마 나 히어로 됐어"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영화 '캡틴 마블'의 주인공 할리우드 배우 브리 라슨이 슈퍼히어로가 된 소감을 밝혔다.

브리 라슨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엄마 이것 봐, 나 슈퍼히어로 됐어"라는 글과 함께 '캡틴 마블' 포스터를 올렸다. 브리 라슨은 '캡틴 마블'의 주인공 캐롤 댄버스 역으로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이다.

'캡틴 마블'은 공군 파일럿 캐롤 댄버스가 월드 오브 뉴 퓨리를 만나 MCU 사상 가장 강력한 히어로

'캡틴 마블'고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내년 개봉할 마블 스튜디오의 첫 작품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사상 첫 여성 히어로 단독 솔로 무비다. 오는 2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한편 브리 라슨은 남치 당한 여성의 실화를 다룬 영화 '룸'으로 제88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표작으로 '룸' '썬탐12' '겜블러' '콩: 스컬 아일랜드' 등이 있다.

eujenej@news1.kr

9월 23일 - 9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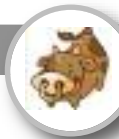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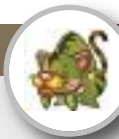
쥐띠 |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운수: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금전:여느 때보다도 씀씀이가 늘어납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애정: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이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해보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3, 26일 주의.



소띠 | 인덕이 따라주어

●운수: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금전: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갖게 됩니다. ●애정: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85, 73, 61, 49, 37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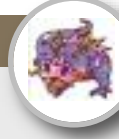
범띠 | 현실적인 판단이

●운수:능력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금전:여러 면에서 발전을 가져오니 금전운이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조롭게 진행되고 수입은 늘게 됩니다. ●애정:애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군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때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3, 27일 길일. 25, 28일 주의.



토끼띠 |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운수: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쓰면서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거레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애정: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릴 여기도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매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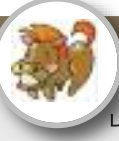
용띠 | 단호히 결정하여

●운수: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하세요. 투자하거나 변화나 변동을 시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금전: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미루고 지체할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이성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



뱀띠 | 이정표를 찾도록

●운수:살아가는 데에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금전:지난날에 뿌렸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니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겠습니다. ●애정: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3, 26일 길일. 25, 28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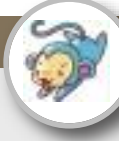
말띠 | 냉철한 눈으로

●운수: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금전: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때이니 지출에 신경 쓰세요. ●애정: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90, 78, 66, 54, 42, 30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양띠 |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운수: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게 됩니다. ●금전: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운이 따라옵니다. 자신이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애정: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3, 28일 길일. 27, 29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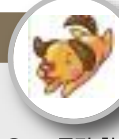
원숭이띠 |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수:평소에 계획한 일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뒷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전: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어집니다. ●애정:혼자 지내오던 사람은 이성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가자기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8일 주의.



닭띠 |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가

●운수: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확 트이고 드넓은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심걱정을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겠습니다. ●금전: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입니다. ●애정:반갑고 기분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 할 배필과의 인연이 이어지는 때이니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7일 길일. 26, 29일 주의.



개띠 | 깊은 관심이 필요한

●운수: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금전: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3, 25일 길일. 24, 26일 주의.



돼지띠 | 여유 있는 마음을

●운수: 하고자 하는 의욕과 활동의 영역을 넓혀보려는 생각은 있지만 몸과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웅크리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집니다. 원가 결심까지 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9일 길일. 25, 26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장수갈비에서 일할 웨이추레스(Full Time, Part Time) 구합니다. .
T. 781-272-3787

알링턴 미스터 스시에서 파트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T. 781-308-2073

뉴잉글랜드 시민협회 채용 공고

모집직종: 사무총장

자격조건:

- 1) 영주권, 시민권자, 미국내 취업 가능자
- 2) 이중언어 (Primary: 영어, Secondary: 한국어)
- 3) 기본적인 컴퓨터 능숙

급여: \$5,000/1년, 지급시점과 형식은 추후 협의
근무시간: 협회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유동적, 재택 근무 가능

근무소임: 협회 임원과 추후 논의
지원방법: newenglandkac@gmail.com, 2018년 9월30일까지 이력서 접수, 접수 후 개별통보.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유재석XJTBC 새 예능 론칭, '요즘애들' 오는 11월 첫방

(서울=뉴스1스타) 김민지 기자 = JTBC 신규 예능프로 그램 '요즘애들'이 본격적인 론칭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JTBC '요즘애들'은 요즘 어른과 요즘 애들이 만나 특별한 호흡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문구가 써져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다른 요즘 애들은 '급식제'로 대화하고, TV대신 스마트폰 '짤'로 대중 문화와 소통한다. 이른바 Z세대(Generation Z)로 불리는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인 만큼 영상 제작, SNS 활용 능력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요즘애들'에서는 이들이 제작한 영상을 요즘 어른이 보고, 궁금한 요즘 애들을 만나 특별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과

정을 담는다. 요즘 어른을 대표하는 멤버로는 개그맨 유재석이 출연을 확정지었다. 유재석과 함께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출연진도 다방면에서 섭외중이다.

'요즘애들'은 JTBC대표 예능 콘텐츠인 '크라임씬',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효리네 민박' 시리즈, '한끼줍쇼'를 제작한 윤현준 CP와 '냉장고를 부탁해'를 연출한 이창우 PD가 담당한다. '해피투게더', '투유 프로젝트-슈가맨'을 통해 오랜 시간 함께 한 윤현준 CP와 유재석의 호흡, 이창우 PD의 감각적이고 신선한 연출이 기대감을 더한다.

한편 19일부터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요즘애들' 모집에 들어간다. 영상을 다룰 줄 아는 만 24세 이하의 '요즘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성만점 자기소개 영상을 제작진에게 전송하



면 된다. 최종 선정된 팀은 유재석을 비롯한 스타들과 함께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 오는 11월 첫방. breeze52@news1.kr

'음악캠프' 조용필 "안성기와 동창...난 평범했다"

(서울=뉴스1스타) 황지혜 기자 = 가왕 조용필이 배우 안성기와의 인연에 대해 언급했다.

19일 오후 6시 가왕 조용필이 MBC FM4U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특별 출연했다.

조용필은 방송에서 50주년 축하 인사말을 남긴 배우 안성기에 대해 인연에 "안성기와 중학교 동창으로 학교 끝나면 함께 걸어 갈 때도 많을 정도로 친했다"고

답했다.

이에 배철수가 "한 사람은 영화계, 한 사람은 음악계의 거목이 됐다"고 감탄하자 조용필은 "그때 이미 안성기는 아역배우로 유명했고 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래서 안성기만 학교에서 머리를 조금 기를 수 있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hwangnom@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슬픔을 견디는 방식(9)

오빠가 육 개월을 따라다녔지만 그녀는 아이를 보게 해 주는 거기까지만 허락했다. 이혼도 필요 없었다. 그 서류에 도장 찍는 따위의 일이 된 소용이냐고 했다.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잘 살아 냈지만 오빠는 날로 망가져 갔다. 엄마는 늘 입에 그녀를 향한 저주를 달고 살았지만 난 덤덤하게 가족의 삶을 바라본다. 작가란 직업이 때로는 좋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의 일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보게 되는 약간의 소시오패스적인 마음을 품게 되어 깊은 슬픔과 절망은 다 종이 위에 담긴다. 반면 내 남편은 모든 사회적 역할을 다 놓아 버리고 철저하게 가족의 평화주의자로 돌아섰다.

드라마 극본에 처음 응모한 날 나는 혼자 술을 훌쩍거리며 포장마차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내가 읽었던 수많은 소설들의 힘을 빌려 어떤 상황이든 이야기로 풀려 버리는 습관이 나를 자연스럽게 드라마를 쓰게 했다. 완성된 문장을 위해 담금질을 할 때는 깊이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그 길을 찾는데 일 년이 걸린다면 글쓰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찾는데 삼십 분 만에 가능하다는 알게 되었을 때, 난 이 지리멸렬한 과정이 꼭 내게 보상을 해 주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 내가 소주잔을 비우자 옆에 앉아 있던 남자가 내 술

잔에 소주를 채워 준다. 난 아무 말없이 그의 옆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내 술잔 속에 일렁이는 전구의 불빛을 보았다. 옆에 앉아 있는 남자의 술잔이 비었다. 나는 그의 술잔에 그의 소주 병을 들어 따라 준다. 네 잔 정도를 주거나 받거나 하며 서로의 술병을 반병 정도 비웠을 때 남자가 내 옆얼굴을 한참 본다.

“오늘 드라마 원고 응모하셨죠? 저도 했어요. 방송국이 집하고 가까워서 직접 접수하러 왔다가 소주나 한잔 마시려고 들렀어요. 그쪽이 들어오길래 아까 방송국에서 본 얼굴인가 싶어 유심히 봤습니다. 타고 한 뒤에 느끼는 이 묘한 느낌, 그쪽도 마찬가지죠?”

그는 술을 별로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주 한 잔을 네 번에 나눠 마신다. 손이 가늘고 길다. 심한 일은 안 해본 사람이다. 아버지와 오빠들의 손은 두박하다. 늘 손을 많이 쓰니 투박할 수밖에 없는 남자들만 봐서 가늘고 흰 손을 가진 남자가 특별해 보인다.

“네”, 난 짧게 대답하고 그는 여러 가지를 묻는다. 난 그가 성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와 말을 오래 섞을 만큼 그는 내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했다.

“난 라이터에 집착을 하는 남자의 심리를 쫓아가는 좀 난해한 시나리오예요. 대중성이 없어서 당선되기 힘들 거예요. 그쪽은요?”

“전 아주 대중적인 내용이에요. 여자들의 유리구두 신드롬을 건드리는 그렇고 그런 이야기요.”

그렇게 대본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 시간을 대본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 내 시나리오가 당선이 되고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반응도 괜찮았다. 몇 년 후 초대권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이 라이터에 관한 것이었다. 대학 공부를 포기한 이후로 내 감정의 변덕은 더 이상 나도 타인도 괴롭히지 않았다. 현실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현실이란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똑같은 짐의 무게일 뿐이다. 한 개인의 몸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그 무게는 무겁거나 가볍게 된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는 서민들의 삶 속에서는 다 고만 고만한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것이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내 몸집의 정제, 내 현실의 정제는 내 열망을 단 한 가지도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깨닫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일찍 알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현실에서 적을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 부모와 오빠들에 대한 나의 독기는 사라졌다. 라이터에 관한 연극을 보고 있는데 남자가 옆에 와서 앉는다. 몇 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 칠 개월을 남자는 나를 쫓아다녔고 나는 그와 결혼했다. 그는 결혼 후 딱 세 번 연극 시나리오를 썼다. 흥행에도 실패하고 극단에서는 남자의

시나리오를 더는 원치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거세되었으나 그는 살아남는 방법으로 살림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내가 방에서 꼼짝 못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아무 소리 없이 잘 해 줬다. 나도 별 불만이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할 살림이다. 오히려 남자랍시고 아무 것도 안 하는 남자가 아닌 것에 감사하며 살았다. 26년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난 집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고 그는 밥을 차린다. 아무런 불만이 없었지만 한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와 섹스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일 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한 것도 종종 실패 하곤 했다. 문제는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내 몸은 뻣뻣하게 굳고 마른 땅처럼 먼지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핀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밤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아리터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티보가 대리점주를 모집합니다!

동부 및 서부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의 티보 대리점을 모집

-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
- 초기 자본 없이 창업 가능
- 전화 한대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창업 가능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화여고 동창음악회 조던홀 갈라 콘서트



김정자
피아노



김이선
첼로



최소영
피아노



클라라 김
바이올린



제이슨 피셔
비올라



수잔 윤
첼로



듀오 Gapi
가야금
피아노



김기영
지휘
연합합창단



석재희
지휘
LA합창단



헬렌 박
반주
LA합창단



김순희
지휘
NY합창단



김명신
반주
NY합창단



서봉숙
지휘
서울합창단



박현선
반주
서울합창단

남가주 이화여자고등학교 동창합창단
대뉴욕지구 이화여자고등학교 동창합창단
이화여자고등학교 동창합창단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8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조던홀
(30 Gainsborough St. Boston, MA)

티켓 및 문의 : 781-223-4411 / ewhaboston2018@gmail.com



주최 : 이화여고 동창회 보스턴 지부

신영의 **세상 스케치**

663회

美 보스턴 인근 로렌스, 노스 앤도버, 앤도버에서 연쇄 가스폭발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다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이런 큰일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행'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나와 가족의 안전'에 대한 감사인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자식을 잃고 슬픔과 고통에 있는 부모 형제와 하루아침에 내 집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의 슬픔 앞에서 '다행'이라는 말에 그만 말문을 닫는다. 먼저 이번 가스폭발로 목숨을 잃은 로렌스의 소년 리오넬 론돈(18세)의 명복을 빈다.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한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연쇄 가스폭발 사고라는 것이 말이다.

요즘은 더욱이 어디를 가나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더욱 그렇지 않던가. 비행기를 타고, 크루즈(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그 어디 안전한 곳이 있던가.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에서 매일 매시간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내가 내 가족이 거기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그래서 신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피조물인 나약한 인간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

.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욕심이 이렇듯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앞에서는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던가.

로렌스와 노스앤도버, 앤도버는 보스턴 시내에서 북쪽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바로 내 동네이고 내 집이 있는 곳이다. 로렌스는 인구 밀도도 높은 곳이며 스페니쉬와 비엔남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시티이다. 로렌스는 30여 년 전만해도 산업(옷, 신발 등)이 활발하던 지역이었다.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빨간 벽돌의 큰 빌딩들이 여기저기 우뚝 솟아 있다. 그 도시가 점점 경제시장이 줄어들고 비즈니스하던 사람들도 떠나다보니 30여 년이 다 되는 동안 점점 경제가 침체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노스 앤도버와 앤도버는 로렌스와 경계를 이룬 미국 백인들과 유대인 그리고 동양인(한국, 중국, 인도 등)이 많이 사는 타운이다. 30년이 다 되도록 이 동네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복잡하지 않고 조용해 좋고 수목이 울창해 늘 편안함을 느끼는 동네이다. 한인들이 몇몇 살고 있지만, 그 숫자가 다른

동양인에 비해 높지는 않다. 내 동네에서도 한국 사람을 길을 지나다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려서는 학교에서 보면 중국 아이들이 많았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인들보다는 인도인들이 많이들 이 사해 오고 있고 여기저기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

9월 13일 하루의 오후였다. 남편의 전화였다. 우리 동네에 가스폭발 사고가 있으니 얼른 밖으로 나가라는 얘기를 해준다. 아직 뉴스에는 특별한 보도가 없으니 다시 전화를 해주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강아지 티노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또한, 남편도 뉴스를 통해 들은 소식을 전달을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의 별 움직임이 없었다. 직장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만 집에 있는 까닭이다. 여하튼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조금 후에 하늘에 세 대의 헬리콥터가 소리가 거세가 내며 뜨기 시작한 것이다. 아, 이제는 무슨 일인가 있는가 실감하는 순간이었

다. 막내 녀석이 전화를 해왔다. 엄마 지금 밖에 나와 있는냐고 물어온다. 그렇다고 하니 그럼 자동차를 드라이브웨이에서 빠져 앞 쉼터에 파킹을 해놓는 것이 낫겠다고 말해준다.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가 강아지 밥을 챙기고 스프링워터 비를 너댓 개 챙겨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30여 분을 더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특별한 움직임을 발견하더라도 움직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며 말이다.

그런데 옆집 인도 아이 엄마를 오전에 보았는데 보이지 않아 그 집에 가서 벨을 눌렀다. 아무래도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 얼마 후 옆집 인도 여자가 자기 친구 부부랑 함께 집에 도착해 가스 밸브를 잠그고 있는 것이다. 인도 남자분에게 우리 집 가스 밸브도 잠귀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저 멀리에서 연기가 솟기 시작했다. 이때는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 비즈니스가 있는 보스턴 시내로 출발하는데 벌써 동네 길이 꽉 막혔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적는 자 남는다**

김화옥

보스턴코리아
칼럼니스트

돌아왔다.

일기 내용이란게 별것 없었다. 밥 먹고, 놀았다. 아주 이따금씩은 숙제하고 놀았다. 이만하면 착한 어린이 아닌가? 하지만, 숙제는 무슨 숙제? 뭘 하며 놀았는지 기억에도 없건만. 어른이 되고도 일기는 이따금만 글적린다. 따로 일기장도 없다. 김시종 시인은 다르다.

사관이 삼가 역사를 적듯
고요한 밤에 조용히 꿰어얹아
나의 하루를 적는다.

...
일기장에도 참된 나는 없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나는 없다.

나도 모르는 새
가식의 웃을 입는다.
(김시종, 일기 중에서)

메모의 기술이란 책이 있다. 얇은 책인데, 꼼꼼히 적으라는 것이고 요

점만 적으라는 거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잊지 않는다고 했다. 생각이 정리된다고도 했다. 하나 마나한 이야기이다. 이 책은 읽으면서 메모도 하지 않았고, 밑줄도 치지 않았으며, 크게 기억나는 구절도 없다.

James Comey. 미국 전CIA 국장 이름이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후, 메모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동안, 신문지상을 가득메웠던 기사였고 사건이었다. 메모는 그가 살기 위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곧 해고됐다. 한국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이 남긴 메모가 문제가 되고 있단다. 그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법적 증거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한국의 전대통령도 메모광이었다고도 했다. 본인이 그럴바엔, 아래 참모들에게도 강조했던 모양이다. 뇌물을 준 사람들도 꼼꼼히 뇌물장부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史官이 있어, 국事國事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했다. 시작은 사초史草인데, 그 마지막 작업은 세초洗草라 했다. 세초는 기밀 누설방지와 종이를 재생, 재활용하기 위한 작업인거다. 세검정이 바로 그 작업터다. 어느 임금이 말을 남겼다. '내가 무서워하는 바는 하늘과 사관' 기록은 임금도 두렵게 한다.

언제 부터인가 내게 못된 버릇이 생겼다. 무조건 적는다. 차츰 깊어가는 건망증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내게 말하는 상대방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적는 내가 스스로 가상하다. 잊지 않겠다는 필사의 노력인데, 적는자 남는다는 말을 깊이 새기고 있다.

일기라면 총무공 이순신 장군 일 것이다. 공공이 남긴 난중일기인데, 담담하면서도 기막힌 기록이다. 자랑할 만하다.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31)



국민학교적이다. 방학과제물이 있었다. 일기를 쓰라 했다. 그리고 제출하라 했다. 친절할 선생님은 읽고 채점한후 돌려줬다. 개학 전날이 되었다. 일기장을 들춰다. 하얀 백지공책이었다. 방학첫날만 반페이지 채워져 있었다. 벼락치기 일기아닌 월기

月記를 써야했다. 기록엔 일기日氣를 적어야 한다. 날씨를 말하는데, 만만한 어머니에게 물어야 했다.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닌바, 그날 날씨를 찾을 수없기 때문이다. 되돌아온 어머니의 통박이다.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 괜한 꾸지람만 되

2018 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위대한 승리!

최정예 50 만 대군을 막아선
88 일간의 결사항전

초대형 전쟁 서사 블록버스터

THE
GREAT BATTLE

한시성

조인성 박성웅 남주혁 김설현 김광식 감독
Next Entertainment World presents WILL DO USA ENTERTAINMENT distribution

09 월 21 일 대개봉

BOSTON : AMC Loews Boston Common 19

175 Tremont St, Boston, MA 02111 / 617.423.5801

상영권 정보 및 티켓 예매 TheGreatBattle-Movie.com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권 경품 이벤트

[facebook.com/HitKMovie](https://www.facebook.com/HitKMovie) 혹은 [Instagram.com/HitKMovie](https://www.instagram.com/HitKMovie) 에서 <한시성> 관람 티켓 인증하고

American Airlines



항공권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기간 9/21-10/14]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2)

무효가 된 신용의무(Fiduciary Duty)

가뭇에 단비가 내리듯 투자자에게 정말로 반가웠던 소식은 “재정설계사는 법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신용의무법안(6/9/2017) 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주식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인 요구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서 일한다고 투자자는 막연히 생각했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재정설계사 15,000명을 고용하고 있던 메릴린치(Merrill Lynch) 금융회사는 신속하게 월스트리트지에 전면광고를 내었습니다. 광고내용의 요지는 메릴린치는 앞으로 수수료(Commission)를 받는 금융상품은 고객에게 일절 팔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광고하며 메릴린치가 얼마나 고객의 이익을 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금융회사와 보험회사는 이런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수료나 비싼 투자상품을 팔기가 어려워 집니다. 고객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의 고통과 수고 끝에 가까스로 통과되었던 법안이 결국에는 또다시 완전히 무효가 된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위한 신용의무 법안이 백지화된 것입니다.

재정설계사가 어떤 금융상품을 추천합니다.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높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금융상품을 판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 않습니다.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어뉴어티(Annuities), 로우드 뮤추얼 펀드(Load Mutual Funds), 비공개 부동산 투자(Non-Traded REITs), 등입니다. 어뉴어티의 평균 수수료는 8%, 뮤추얼 펀드는 6%, 그리고 비공개 부동산 투자는 무려 13%입니다. 높은 수

수료와 투자 경비는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나의 투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금융회사는 재정설계사에게 수익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목표를 달성하면 보너스와 호화로운 가족여행을 선사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정설계사에게는 당연히 돌아오는 수입도 적어지고 승진할 기회도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재정설계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월스트리지(Whistle blowers detail Wells Fargo wealth management woes, WSJ, July 27, 2018)가 자세히 기사화했습니다.

2018년 6월 신용의무가 완전 폐지가 되자 메릴린치는 기다렸다는 듯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고객의 돈을 다시 투자하겠다고(Merrill Lynch to resume charging commissions on retirement Accounts, Lisa Beilfuss, WSJ, Aug. 30, 2018)고 발표했습니다. 신용의무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금융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법안이 무효가 되자

이런 상품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에 나의 자산에 대해서 나보다 더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다(No one is on your side. Nobody cares about you.)”라는 말이 정녕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신용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후 금융기관(SEC)에 등록하면 됩니다. 평생 모든 소중한 고객의 돈을 운용하며 신용의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는 재정설계사가 신용의무를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은 투자자 몫이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에 등록된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RIA)만이 신용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신용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의껏 신용의무를 준수하는지는 재정설계사 각자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44 화랑세기花郎世紀, 9세 풍월주風月主 비보랑秘寶郎(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번에는 삼국사기(진평왕 9년 본기)에 실린 ‘대세와 구칠’ 이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 사건을 참고한 화랑세기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를 인용해 본다.

[처음 공이 동대공冬臺公의 아들 대세大世에게 천재天才가 있어, 전방대화랑으로 삼고자 했다. 그런데 대세의 어머니는 곧 실보寶의 손아래 누이인 골보骨寶였으니, 대세는 공의 종제가 되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하여 이루지 못했다. 양위함에 이르러 미생공에게 부탁하여 대세에게 전방대화랑을 주었다. 얼마 안되어 미생의 첩의 동생인 제문랑諸文郎이 그 자리를 원하여, 대세가 유화를 탐했으며 술을 마시고 행동이 거칠었다는 것으로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했다. 대세는 이에 노하여 곧 들野에 나아가 자취를 감추었다.

대세와 덕명은 같은 나이로 몹시 그리워하여 물레 서로 정을 통했다. 공은 알면서 꾸짖지 않았다. 대세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마침내 덕명과의 관계를 끊었다. 스스로 모랑과 완적院籍에 비교했고, 술을 마시면 번번히 울었는데, 유화들 중에 그를 사모하는 자가 많았다. 대세는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았다.

비보랑공은 그 아픔을 알고 가엾게 여겨 좌

방화랑으로 삼았다. 얼마 안되어 다시 발탁하여 우방화랑으로 삼아 장차 크게 쓰일 것임을 보여주고, 대세에게 술에 빠짐을 절제토록 권했다. 잠시 관찮게 되는 것 같았다. 미생공이 전방대화랑에 처음 발탁하고 나서 대세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다. 대세는 본디 미생공에게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에 술을 마시고 미생이 탐욕스럽고 어리석어 가뭇을 불러왔다고 욕했다. 미생공은 이에 심복 낭도를 시켜 그 황난荒亂한 것을 공격케 했다. 공은 곧 사문沙門 담수로 하여 대세를 보살피게 하고, 때때로 술을 보내어 위로했다. 대세는 이에 발분하고 힘써 공부하여 신선의 참된 도를 터득하고자 했다. 천우인 구칠과 더불어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갔다. 구칠 또한 공의 화랑이었다. 두 사람이 떠나가자 공의 심복 낭도들이 많이 불안해 했다.]

위의 인용문이 화랑세기에 실려 있다. 뒤를 이어 바로 화랑도의 분과 된 내용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세 풍월주 미생랑조에 기록되어 있다. 즉 대세와 구칠 그리고 승려 담수 3인의 등장으로 된 내용에서 삼국사기에는 대화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실려있다. 대세가 처음에는 담수와 동행하여 득도하고자 했지만 담수는 ‘머리를 깎고 불문에 들어도를 닦는 사람’인 사문임에도 거절하였다. 그래서 대세는 동료 화랑인 구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하여 ‘가랑잎배 경주’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세는 구칠과 의기투합하여 남해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기록된 최초의 이민자가 아닐까 추측해본다. 삼국사기를 집필할 때 화랑세기를 참조했는데, 삼국사기와 화랑세기의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그들의 ‘이민’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또 다른 문헌이 당시에 존재했다고 보여진다.

대세는 단순히 신선의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화랑도를 중심으로한 조정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 것이었다. 대세는 화랑도 조직 안에서 전방대화랑을 거쳐서 부제가 된 다음 풍월주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충분히 있었지만 미생 일파에게 밀려난 것이다. 통합원류를 이끌며 또한 풍월주인 비보랑의 신임도 두터워서 부제副弟에 버금가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부제이면서 미실의 동생인 미생과의 불화로 인하여 미생파에 의해서 입지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곧이어 미생이 풍월주로 취임하면서 대세를 화랑의 서열 3순위인 전방대화랑으로 기용하였다. 그러나 미생은 상선(전임 풍월주) 비보랑의 부탁이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임명하였고, 그에게 실권은 전혀 주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세를 파직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첩의 동생 제문랑을 앉혔다. 파직의 명분은

대세가 유화들을 탐하고 폭음을 하며 행동이 거칠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대세에게는 음주를 하고 나면 ‘황난荒亂’, 즉 거친행동을 하는 못된 버릇이 있었다. 부인과 사통을 하여도 용서해주고 아끼던 후견인인 비보랑이 대세에게 여러차례 음주와 언행을 절제하라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대세는 전방대화랑직에서 파직 당한 후로는 처음부터 좋아하지 않았던 미생을 ‘탐욕스럽고 어리석어 가뭇을 불러왔다’고 공격하였다. 화랑세기에는 ‘비보랑이 풍월주로 재임한 기간에는 나라와 가정이 태평하고 곡식이 익고 백성이 배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모두 비보랑의 주O主O’라고 이어지는 데 탈자가 있어서 정확한 해독은 안되지만 그가 풍년을 불러온 주인공이라고 추측해본다. 또한 ‘미생공이 취임함에 이르러 곧 봄에 가물어 곡식의 씨를 뿌리지 못했다. 진평왕이 반찬 수를 줄이고 죄수를 풀어주자 비가 왔다. 사람들이 미생공이 욕심이 많은 때문이라 생각했다’라는 기록이 이어진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교차 검증되는 기록이 있다. 미생의 탐욕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당시 가뭇에 대한 기록은 있다. 대세가 서해 바다로 떠나기 2년 전인 585년,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진평왕7년조에 “봄 3월에 가뭇었으므로 왕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평상시 반찬 가짓수를 줄였으며, 남당南堂에 나아가 몸소 죄수의 정상을 살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KOREA WEEK

“JOURNEY TO PEACE” BY PHILHARMONIA BOSTON

Saturday, September 29, 2018
at 7:30 PM
Granoff Music center, Tufts University

2018-2019 Season
Music Director: Jinwook Park

Sponsored by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Boston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Boston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Tufts KSA

General: \$20
Senior: \$10
Student: Free

Contact: 978-821-9434 . harmoniaboston@gmail.com . www.philharmoniaboston.org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ee@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상속세 · 증여세(2)

한국의 증여재산공제

지난주, 미국거주자가 한국거주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동일인(10년합산대상자)이 아닌 자로부터 분할하여 증여를 받으면,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증여건별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 한국의 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번주는 한국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증여재산공제와 동일인 합산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의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수증자가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 계	공제금액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	1천만원
기타 타인	없음

여기서 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계부 · 계모는 직계존속,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장인 ·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 관계에 해당한다.

한편,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0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며, 20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한다.

이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8년도 중 한국의 아버지가 한국거주 성인인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원씩 증여했다.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한다. 따라서 아들과 딸이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각각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낸다.

만약 수증자인 아들과 딸이 미국거주자라면, 아들과 딸이 각각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하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들과 딸은 각각 1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사례2) 2018년도 중 한국거주 성인인 아들이 한국의 아버지로부터 2억원,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동시에 증여받았다.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이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가 합산되어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은 3억원이 되며, 이 중 아들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받게 된다. (아버지 증여액 중 5천만원, 어머니 증여액 중 5천만원을 받는 것이 아님). 따라서 아들은 2억5천만원에 대

해 증여세를 낸다.

만약 수증자인 아들이 미국거주자라면, 아들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사례3) 한국거주 성인A가 2018년도 중 한국의 장인으로 부터 2억원, 장모로부터 1억원을 동시에 증여 받았다.

수증자인 A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때 장인 · 장모와 사위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관계다. 따라서 장인과 장모는 10년 합산대상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시 장인의 증여와 장모의 증여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이때 증여재산공제는 10,000,000원(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이므로)이며, 이를 장인과 장모의 증여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장인의 증여와 장모의 증여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장인의 증여에서 6,666,667원(10,000,000원/3억 X 2억), 장모의 증여에서 3,333,333원(10,000,000원/3억 X 1억)을 공제받게 된다.

즉, 수증자인 A는 장인의 증여 193,333,333에 대해, 장모의 증여 96,666,667에 대해 세금을 낸다.

만약 위의 A가 미국거주자라면, A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장인의 증여 2억원, 장모의 증여 1억원에 대해 각각 증여세를 내야한다(합하여 3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사례4) 2018년도 중 한국거주자 B는 한국거주 배우자로부터 시가 10억원인 한국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함. 따라서 B는 4억원(10억 - 6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만약 위의 수증자인 B가 미국거주자라면, B는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B는 10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한다.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휴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ee@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한반도 평화기원 특별 세미나

그리고 평화 음악회



“JOURNEY TO PEACE”

By Philharmonia Boston



김용현 주보스턴총영사

특별초청 강/연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부단장
전 평화외교기획 단장

Saturday Sep. 29. 2018

Granoff Music Center @ Tufts University

(20 Talbot Ave. Medford, MA)

강연 : 5:30 ~ 7:00 PM

음악회 : 7:30 ~ 9:15 PM

강연 후 간단한 음식이 제공 됩니다.



민주평통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 Boston Chapter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2018년9월21일)

● 영주권 인터뷰 (Adjustment Interview)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던 영주권 인터뷰가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3월 6일 이후 신청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인들 에게도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영주권 인터뷰의 경향을 보면 확실히 이민국이 이민법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신청서에 대한 완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리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뷰 경향을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신청서에 기재된 거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 질의합니다. 신청인의 답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경우 신청서 거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주권 신청서 (form I-485) 에 기재된 지난 5년간의 주소와 기간이라든지, 지난 5년간의 취업여부와 기간 등 이전에는 대략적인 정보만 답해도 인정됐던

부분들이 최근에는 정확한 답이 아니면 인터뷰를 통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background 에 대한 질문 (대부분 정답이 No) 들에 대해서도 답을 기재하지 말아야 하는 질문들이 몇개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질문들에 Yes 또는 No 로 기재했어도 문제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문제삼고 있습니다. 따라서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신청전과 인터뷰 전에 꼭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인 경우 본인이 기준이 아닌 일반적으로 가족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상대방의 퇴근시간, 가족의 재정 상태,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부부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모님 생일일을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정보는 미리 숙지하고 가시는 것이 좋

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면 이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민국의 입장입니다.

취업이민의 경우도 예전에는 본인에 대한 사항만 알고 가면 충분했지만 최근에는 고용회사/고용인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들면, 고용회사/고용인의 주소, 직원수, 매출액 등 피고용인이 몰라도 되는 것들도 질문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부부초청 영주권에만 적용되던 기준들이 취업이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나머지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으로 취업이민을 받을 때도 부부 영주권 신청과 같이 부부관계에 대한 세세한 질문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한 답만큼 중요한 것이 증빙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즉, 인터뷰에서의 질문에 대해 구두로 한 대답들을 실제로 증명할 자료들을 준비해 가서

야 합니다. 다시말하면, 말만으로는 못믿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급적 답변을 뒷받침할만한 것들은 모두다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부부가 같이 여행을 다녀왔다는 대답을 할 경우를 대비해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가져간다거나, 서로 재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대답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명의 은행고지서 (joint-bank statement) 를 준비해가거나, 지난 5년간의 일경험을 증명하기 위해 전직장으로부터 재직증명서나 세금보고서 등을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영주권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인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까다워졌다는 것이 모든 신청서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답에 대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가시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쉽게 인터뷰를 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 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 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직원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십 자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 H-1B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Job Title)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포지션이 전통적으로 이민국이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온 직종인지의 여부와 함께 실제 업무의 난이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경우 대체로 업계에서 대학졸업자까지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1B에서 요구하는 전문직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업체들의 대형화 및 브랜드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시킨 업체들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케팅, IT 전문가 등 세부 분야 별로 다양한 전문 인력을 고용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직의 난이도가 최소 관련 전공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H-1B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세일즈 포지션이라 하더라도 매니저급 직급일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 책임과 관여도가 높아지는 만큼 대학 수준 이상의 관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H-1B 스폰서를 신청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반 엔트리 레벨 세일즈맨 포지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해야 함을 업주분들께서 고려하셔야 합니다.

H-1B 신청시 처음부터 고용주의 회사세금보고서가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추가서류 요청(RFE)을 통해 회사의 재정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H-1B 승인을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의 수입이 해당 H-1B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보고되었어야 합니다.

H-1B 비자 외에 다른 비자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E-2 종업원 비자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E-2 투자자 비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한 업주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직원이 업주분과 동일한 국적자라면 E-2 종업원 비자로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H-1B와 달리 최소 학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고교졸업자 또는 준학사 학위자라도 채용 및 스폰서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이 정한 적정임금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급여면에서도 업주분들께 용이합니다. 다만, E-2 종업원 비자 스폰서를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직급이 "관리자급" 또는 필수직원(특별한 지식/기술 보유) 포지션이어야 합니다. 필수직원의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함을 이민국이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E-2 종업원 비자를 승인받기가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관련 경력이 충분한 직원을 관리자급으로 스폰서하실 의향이 있을 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디자인, 웹디자인, 또는 제품디자인 등의 포지션의 경우 O-1 아티스트 비자도 가능합니다. 해당 직원이 디자인 관련 분야에서 특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해보실만한 비자입니다. O-1 비자 역시 노동청에 정해놓은 적정임금이 없으며, 최초 3년 체류기간을 승인받은 이후 같은 회사에서 같은 포지션으로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면 과정은 어떠한고 고용주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요?

취업 영주권 스폰서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포지션도 스폰서가 가능하며, 최저 학력 및 경력 또한 고용주가

원하는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3순위 영주권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노동청에 적정임금을 신청한 후 구인광고를 해야 하고, 광고가 끝나면 노동청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약 10-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이민국에 취업청원서와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이민국 인터뷰가 의무화된 이후로 영주권 승인까지 최소 5-12개월 정도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1.5년에서 2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취업청원서 접수시 고용주는 노동인증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영주권 수속 과정 전반에 걸쳐 해당 포지션에 책정된 적정임금을 지불한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년도 회사세금보고서 상의 순수익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높으면 무난히 통과됩니다. 만약 해당직원이 이미 H-1B나 E-2 비자로 회사에 고용된 상태라면,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의 차액만 세금보고서의 순수익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만약 세금보고서 상의 순수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순자산으로도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상속,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융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런드로맷, 서머빌/매드포드지역, 연매상 230,000+, 사이즈 2000sq+
머니메이킹, 아파트 주거지역,

세탁소 풀 플랜트, 워터타운/월담지역, 연매상 185,000+ 좋은 지역

Reflexology(리플렉솔로지:손발건강 관리), 연매상 \$700,000, 연 순수익 \$250,000
아주 변화한 좋은 장소

보스턴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턴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턴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턴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턴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턴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턴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턴 북쪽 드랍+아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턴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턴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턴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턴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턴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파벳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턴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써,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턴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